



# 미국 대선과 산업정책의 변화



CONTENTS

<b>01/</b>	2024 Big Match: 트럼프 vs. 바이든	5
<b>02/</b>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15
<b>03/</b>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41
<b>04/</b>	국내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59

## Executive Summary

### [미국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 정책 영향]

- 과거 공화당, 민주당의 예산 집행을 참고 시, 국방, 기초/실증연구에 대한 예산안 변화 전망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등 친환경 정책 영향 불가피
- 전통에너지(원유, 가스) M&A 및 구조개편 지속 전망 →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 [결론]

- 미국 외 EU의 정책을 함께 참고 시, 그린산업 전환 방향성은 유효
-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CBAM 등 기후리스크는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01

# 2024 Big Match: 트럼프 vs. 바이든

# 트럼프, Agenda 47 통해 정책 방향성 제시

## 전기차 산업, 그린전환에 부정적

- Agenda47을 통해 47대 대통령 당선 시 정책 방향성 제시
- 전기차, 그린전환이 미국 시민들과 기업들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
-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연비 규제 종료, IRA 폐지, 그린뉴딜 반대
- 국가 관세 정책 제정, 10% 보편적 관세 부과,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 부가, 보호무역주의 등 과거 임기와 비슷한 내용들 주를 이뤄

### Agenda47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에너지원 종류 상관없이 <b>에너지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b></li><li>▪ <b>파리기후협약 탈퇴 시사</b></li><li>▪ 발전소, 송유관, 송전망, 항만, 정유시설에 투자</li></ul>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바이든의 CAFE 강화가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게 2,00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으며 관련된 11만 7,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비난.</li><li>▪ 과거 임기에 TPP취소, NAFTA 재협상, 오바마 대통령 시절 협정 재협상 등 이력 존재</li></ul>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rump Reciprocal Trade Act(TRTA, 트럼프 호혜 무역법) 통과시켜 상대국과 동일하거나 두배의 관세 부과, <b>10% 보편적 관세 부과</b></li></ul>

자료: Agenda47, 유진투자증권

# 니키 헤일리 경선 후보의 부상

## 니키 헤일리 정책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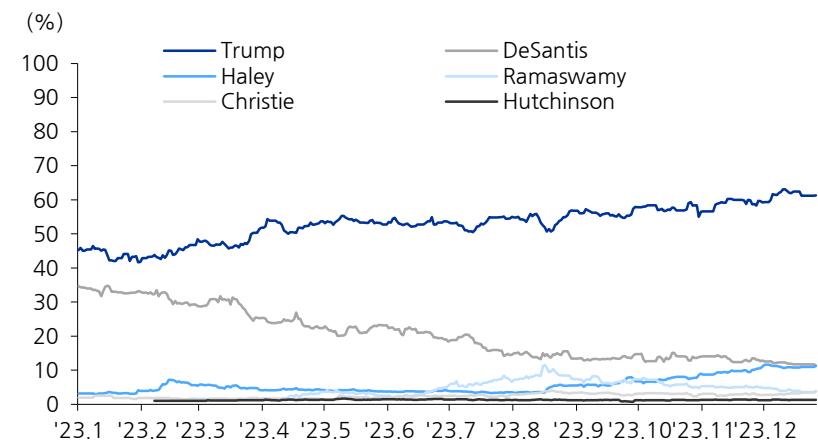
- 니키 헤일리 공화당 경선 후보의 정책 캠페인은 크게 ①기후 변화, ②중국, ③경제 정책 및 ④노동 조합 등으로 정리 가능
- **기후변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유엔 대사로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밀접하게 관여한 인물로, [파리협정 재탈퇴, 석유·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를 주장. 또한, [탄소 포집 기술 이용 확대를 지지](#)하며,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기후 변화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
- **중국:** 대중 경제 협력에 강력히 반대하며, 미중 양국이 생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 중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토지 구입 및 중국 기업의 로비 활동 금지를 촉구했으며, 중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을 주장
- **경제정책:**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높은 정부 지출을 지적. 사회보장 제도, 메디케어 등 상당한 재정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선심성 지역 예산(earmark)'을 폐지하겠다 주장. 또한, 연방 가스세 및 과세표준 구간 철폐를 제안
- **노동조합:** 과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부터 자칭 '노조 파괴자'로서 노조 결성 노력에 맞서 싸웠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도 반대

## 니키 헤일리 공화당 경선 후보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 공화당 경선 후보 지지율



자료: 538, 유진투자증권

# FY2018,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 문제 인식과 접근법

- FY2018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국가채무 부담 및 저성장을 “위험한 결합”이라고 간주하며, 외부 위협에 대한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오바마 前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규제로 미국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비판
- 기후 변화와 질병 퇴치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기존의 재정 지원(R&D 등)을 삭감할 것을 제안
- 종합적으로 미래산업 및 국방 R&D를 통한 미국 리더십 강화를 추구했으나, 각종 규제 강화, 권한 약화로 임기 중반 이후 R&D 삭감

##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의 문제 인식 및 접근 방법

분야	문제 인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기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초점: 기후 변화 대응 위한 리더십 강조</li><li>방안: 기후 변화 대응과 더불어 혁신 및 <u>일자리 창출 기회 모색</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기여 필요성 인식 않음</li></ul>
질병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질병 퇴치를 위한 자원, 기술 등 협력 체계 구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질병 퇴치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조치 취하지 않음</li></ul>
경제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초점: 전반적인 경제 불평등</li><li>방안: 보육 및 교육 기회 확대, 경제 안전망 확대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 제고, 빈곤 탈피 및 지역 간 이동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초점: 자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무역 적자</li><li>방안: 자국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 지원, 이민자 단속법 강화, <u>무역 보호주의 강조</u></li></ul>
국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테러집단 공격성 약화 위한 조치, 사적 영역 및 연방 정부 사이버 보안 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안: 군사적 역량 및 국경 안보 강화, 이민자 관련법·단속법 강화, 사이버 보안 강화</li></ul>
정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초점: 효율적인 정책 집행</li><li>방안: 실험경제학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비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초점: 정부의 규제, 연방정부 중심 세계정책, 정부 서비스 범위</li><li>방안: 오바마케어 폐지, 정부의 규제 수준 완화, 주정부의 자율성 강화, 소득세 감소, 대체최소세금 폐지, 복지서비스 자격요건 강화</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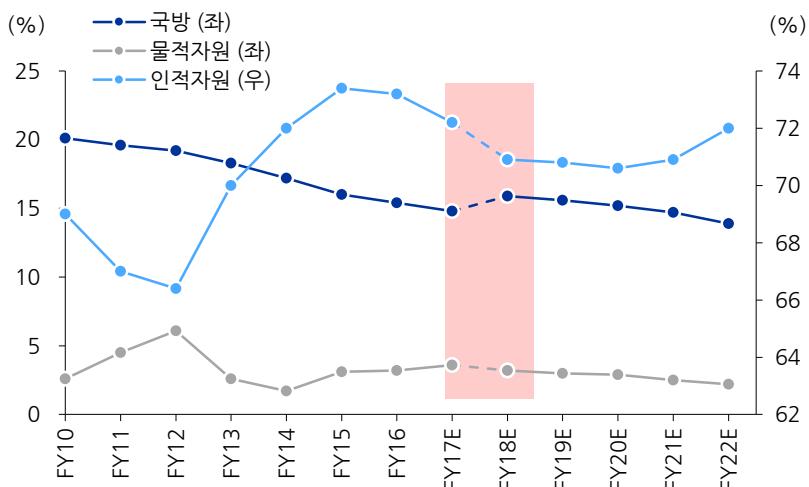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진투자증권

# FY2018,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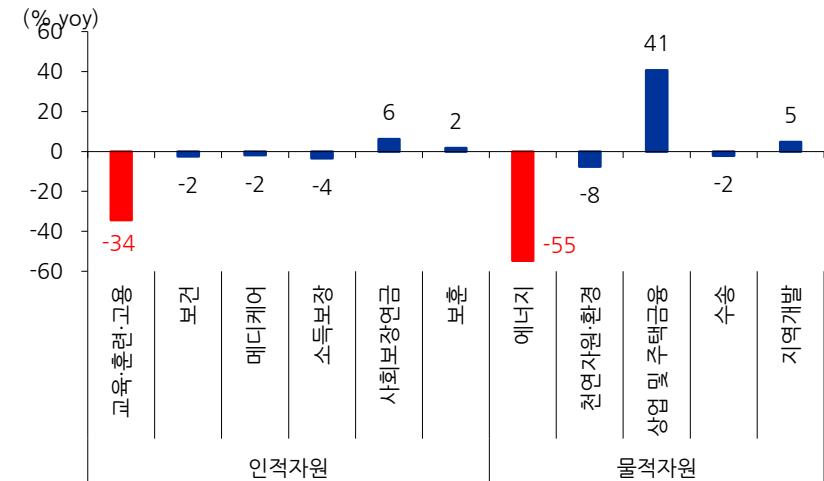
-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은 [새 행정부의 정책 기조 및 수단을 종합적·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
- FY2018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지출의 중점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시  
→ 경제적·물리적 보호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 & 그 외 집단은 배제
-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 [국방비 예산 증대](#)를 요청. 이를 위한 자금은 非국방비 분야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할 것을 제안

FY2018 주요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 국방 ↑, 물적·인적자원 ↓



자료: OMB, 유진투자증권  
참고: 2017년 기준

FY2018 물적·인적자원 소분야별 예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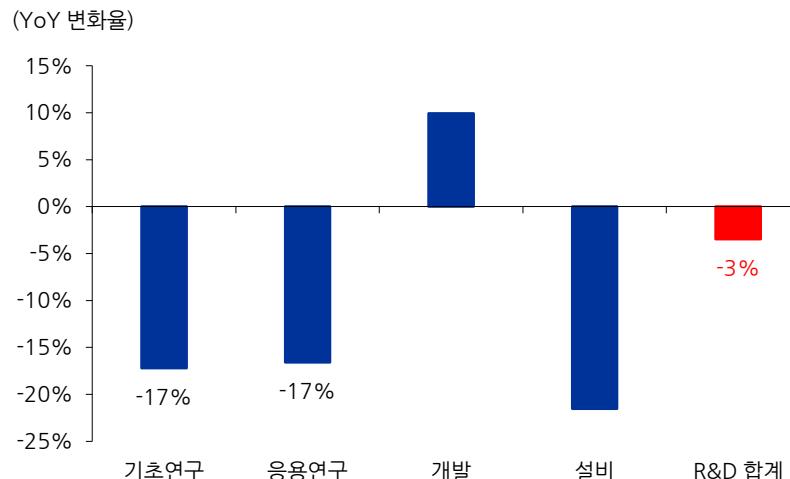
자료: OMB, 유진투자증권  
참고: 2017년 기준

# FY2018,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분석

## R&D 대폭 삭감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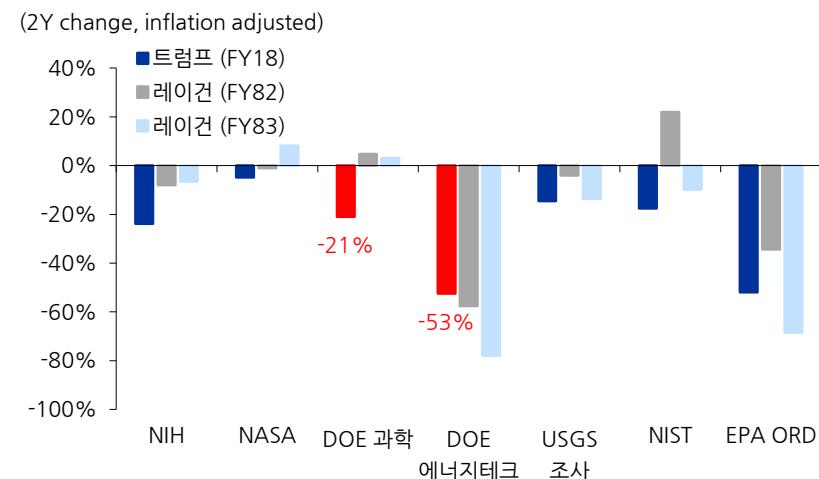
-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국\(NNSA\)](#) 이외의 모든 과학기술 기관 및 프로그램이 비국방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국방예산의 규모는 R&D 자금 조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 트럼프 행정부의 [FY2018 예산안은 R&D 자금, 특히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삭감을 제안](#)했으며, 이는 레이건 이후 40년 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삭감
- 트럼프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 전략은 ①국방비 지출 확대, ②세금 감면 및 ③비국방 예산 축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사
-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최소한 기초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

### FY2018 예산안: R&D 성격별 분류



자료: AAAS, 유진투자증권

### 과거 레이건 행정부와 다소 유사하나 더 과격한 R&D 지출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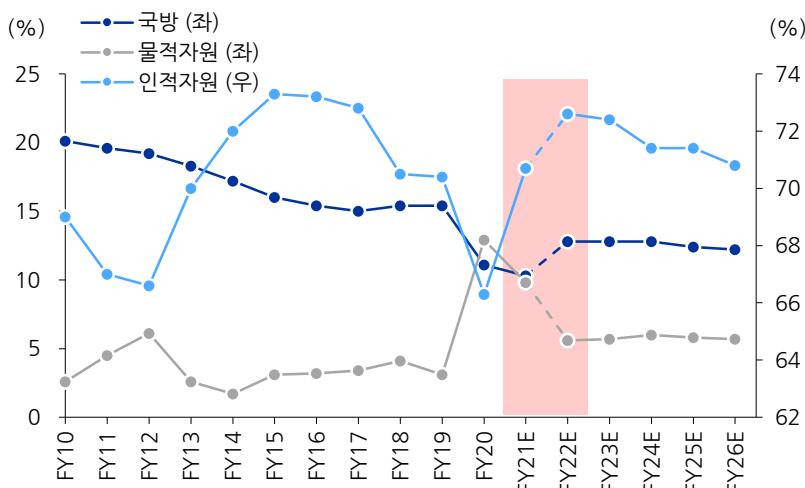
자료: AAAS, 유진투자증권  
참고: 예산안 기준 (2017.3)

# FY2022,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 분석

## 바이든 행정부의 FY2022 예산안

-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 제출은 기존 일정보다 크게 지연되며 전면 개편. FY2022 예산안은 ①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②모두를 위해 기능하는 경제 창조, ③기후위기에의 대응, ④형평성의 강화, ⑤미국의 글로벌 입지 회복 및 21세기 안보 문제에의 대응 등 5대 핵심 영역을 제시
- 특히, ‘기후위기에의 대응’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기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등 환경 정의적 관점을 함께 강조

## FY2022 주요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 국방·인적자원 ↑, 물적자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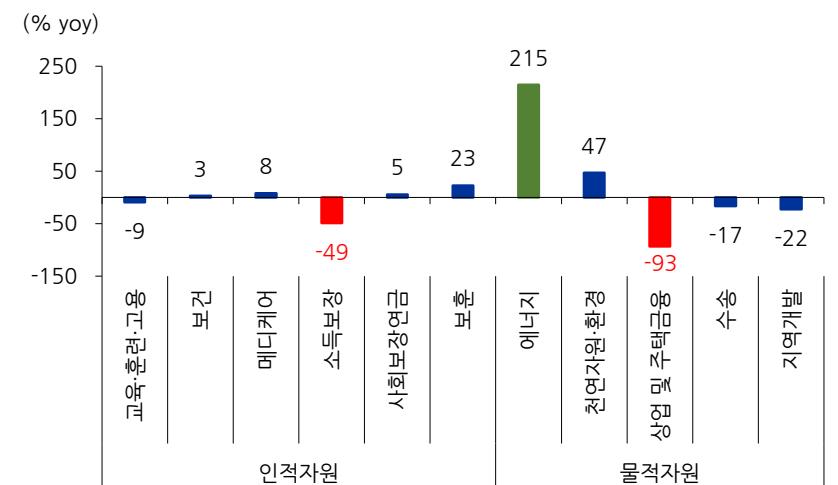
자료: OMB, 유진투자증권  
참고: 2021년 기준

## 미국 연방정부 예산 편성 절차 및 법정 일정

시한	2월 첫째 월요일	4월 15일	6월 10일
절차	대통령 예산안 제출	상·하원 예산결의안 채택	하원 세출위원회 세출법안 심의
6월 15일	6월 30일	~9월 30일	10월 1일
상·하원 조정법안 의결	의회 세출입법 완료	대통령 서명	회계연도 시작

자료: OMB, 유진투자증권

## FY2022 물적·인적자원 소분야별 예산변화



자료: OMB, 유진투자증권  
참고: 2021년 기준

# FY2022,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 분석

##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분석

- 바이든 행정부의 첫 예산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 특히, 응용과학국 예산안에서 모두 대폭 증액

###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요구안 분석: DOE

조직	내용											
과학국 (Office of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능: 에너지 분야 기초 연구 지원</li><li>주요 프로그램: 첨단과학적 컴퓨팅 연구, 생명환경 연구, 기초에너지과학, 융합에너지연구, 고에너지물리학, 핵물리학</li><li>과학국 소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0.4~2.5% 증액된 것과 달리, 생명환경연구는 전년 대비 10% 증액</li><li>생명환경연구 프로그램은 에너지정책의 사회/환경적 파급효과 평가를 위한 기후/에너지 연구 강화 등을 제시</li></ul> <p>&lt;표&gt; 에너지부 과학국의 예산 배분·요구 규모</p> <table border="1"><thead><tr><th>FY20 제정예산</th><th>FY21 제정예산</th><th>FY22 예산요구안</th><th>YoY</th></tr></thead><tbody><tr><td>7,000백만달러</td><td>7,026백만달러</td><td>7,440백만달러</td><td>+414백만달러 +5.9%</td></tr></tbody></table>				FY20 제정예산	FY21 제정예산	FY22 예산요구안	YoY	7,000백만달러	7,026백만달러	7,440백만달러	+414백만달러 +5.9%
FY20 제정예산	FY21 제정예산	FY22 예산요구안	YoY									
7,000백만달러	7,026백만달러	7,440백만달러	+414백만달러 +5.9%									
응용 과학국 (Office of Applied Science)	에너지첨단프로젝트 사무국 (ARPA-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FY2022 총 총 15개의 Focused Program 출범 (탄소중립/탄소흡수형 건축재료, 고준위성 핵폐기물의 획기적 감축, 고용량/초고 속 충전을 위한 첨단 배터리 전극 및 전도체, 송전망 복원력/안정성/유연성, 최첨단 핵융합 접근방식 및 에너지 응용 등)</li></ul>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 (E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li><li>풍력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액 (+86.2%yoY)</li><li>바이오에너지/수소/연료전지/태양에너지/첨단제조/건물/지열/자동차/수력 등도 모두 대폭 증액 (+31.5~54.5%yoY)</li></ul>										
	화석에너지 및 탄소관리국 (FEC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방침하에 일부 프로그램 조정</li><li>석유로부터의 비재래 화석에너지 기술, 초임계 전환적 전력(STEP), 전환적 석탄 파일럿 프로그램 전액砍감</li><li>직접공기포집/CO<sub>2</sub> 전환 등 차세대 탈탄소기술 등에 대한 지원 강화</li></ul>										
	원자력에너지국 (N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원자로 컨셉 R&amp;D 및 첨단 원자로 실증 증액 (각각 +15.4%yoY, +19.1%yoY)</li><li>반면 원자력 기술 분야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 횡단적 기술연구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 실현기술(NEET)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 증액('21: 123백만달러 → '22 Request: 124백만달러)</li></ul>										
	전력국 (Office of Electr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에너지 부문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R&amp;D(25백만달러) 및 에너지 송달망 운영기술(44백만달러) 예산 신규 편성</li><li>에너지 저장의 경우 72백만달러 편성 (+26.3%yoY)</li></ul>										

자료: GTC(2021), 유진투자증권

# FY2022,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 분석

##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요구안 분석: USDA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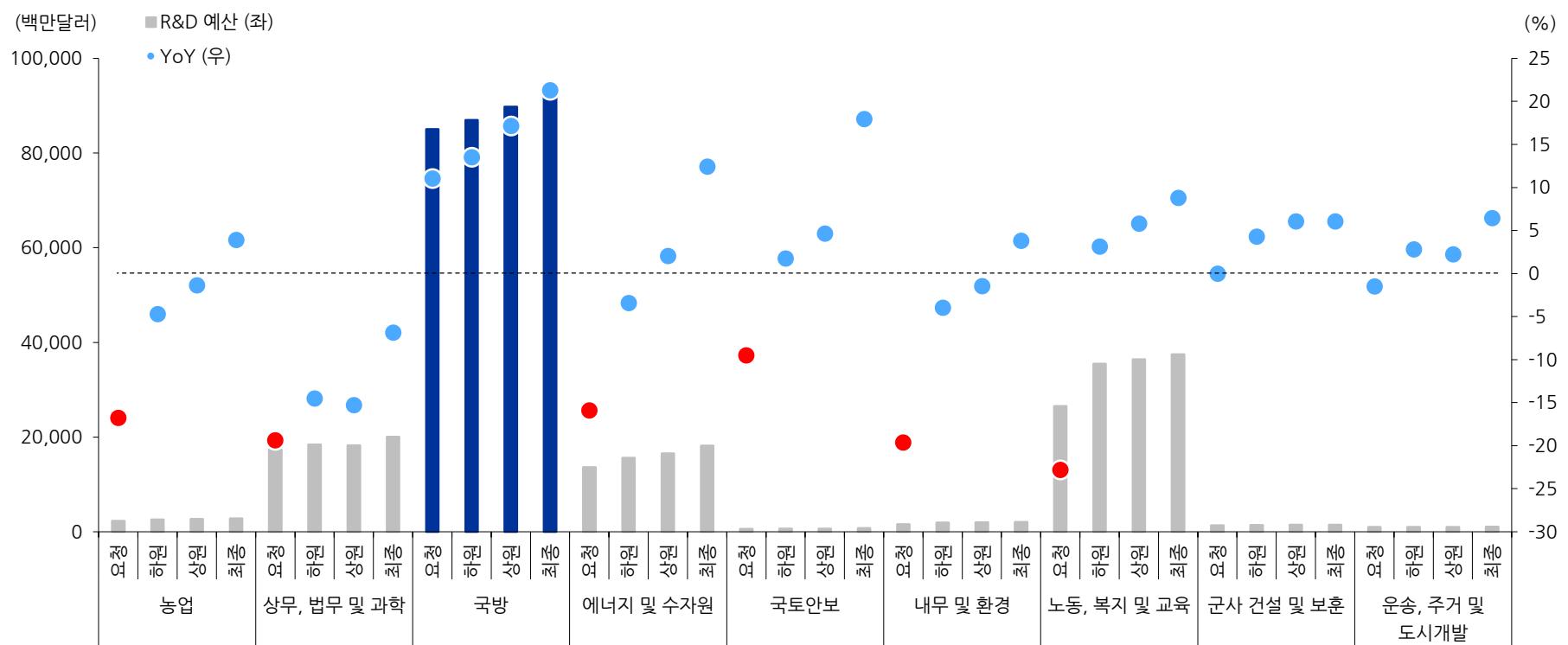
조직	내용
농무부 (US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95백만달러 예산요구안 제출 (+23.9%yoY)</li> <li>기후변화 관련 예산으로서 작물보호/식량안전/가축 보호 등을 위한 기후과학연구(92백만달러), 청정에너지 기술 최적화(99백만달러), 기후 허브(5백만달러) 예산 포함</li> <li>기후 허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개발, 기술 교환 등을 수행하는 기구 간 협력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1백만달러 예산요구안 제출 (+24.4%yoY)</li> <li>기후변화 관련 사항으로 기후 허브(5백만달러) 예산 배정</li> </ul>
산림청 (Forest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4백만달러 예산요구안 제출 (+21.2%yoY)</li> <li>산림 및 목아지 연구 관련 연구역량의 회복 선언</li> <li>산림 상태 및 산림 인벤토리 연구(3백만달러), 공동 소방과학 프로그램(3백만달러), 산림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관련 연구(37백만달러) 예산 포함</li> </ul>
보건복지부 (H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변화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원 예산 증액(+100백만달러)</li> </ul>
환경보호청 (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A 주관 6대 국가연구프로그램 중 기후변화와 연관 깊은 '대기, 기후 및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예산 증액 (+64.0%yoY)</li> <li>환경정의와 형평성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접근</li> </ul>
해양대기청 (NO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연구(+62.6%yoY), 기상위성(+34.0%yoY), 대양/해안 및 5대호 연구(+28.1%yoY) 등 기후변화 관측 및 모니터링 분야 예산 증액</li> </ul>
지질조사국 (US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42백만달러 예산요구안 제출 (+24.9%yoY)</li> <li>생태계: 기후적응과학센터 및 토지변화과학 프로그램(+98.4%yoY), 국가/지역 기후변화 적응과학센터(+102.8%yoY) 등 적응 관련 연구예산 증가</li> <li>에너지 및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프로그램 예산 53백만달러 요구 (+76.2%yoY)</li> </ul>
항공우주국 (NA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과학 분야 예산으로 2,250백만달러 요구 (+12.5%yoY)</li> <li>예산요구안 서문에 <b>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우선순위는 기후변화 대응</b>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NASA의 지구과학 관련 사항에 반영하였음을 명시</li> <li>트럼프 행정부 당시 예산 삭감의 표적이 되었던 기후 절대복사 및 굴절률 관측소 패스파인더, 플랑크톤/에어로졸/구름 및 해양생태계 연구 등 과학 미션 포함</li> </ul>
국립과학재단 (NS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40백만달러 예산요구안 제출 (+17.8%yoY)</li> <li>청정에너지기술 및 미국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의 연구 및 관련 활동 예산 증액 (각각 +31.7%yoY, +46.3%yoY)</li> </ul>
[신규] 기후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 (ARP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목적: 기후변화 적응, 2050 에너지부문 Net-Zero 달성을 위한 혁신 지원</li> <li>추진체계: 조직은 에너지부 내 설치, 예산 등은 유관부처와 협력</li> <li>요구내역: 6개의 초기 프로그램 추진/운영비로 에너지부에서 2억달러 규모 예산 순증 + 타 부처로부터 3억달러 예산 조달</li> <li>지원분야(안): ①온실가스 관측/기후 감지/모니터링 기술, ②탄소중립/탄소흡수 농업 생산 및 일반 토지/담수/해양 활용, ③토양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방지, ④탄소중립적 폐기물 및 리사이클링, ⑤기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인프라 등</li> </ul>
[신규] 청정에너지실증국 (O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목적: 에너지 분야 도전과제 대응 위한 실증 프로젝트 공모 및 지원</li> <li>요구내역: 운영비 및 상업화 단계 기술에 대한 최초 주제 공모 비용으로 4억달러 예산 순증</li> </ul>

# 트럼프 예산안(FY18) vs. 바이든 예산안(FY22)

## 시사점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초과학(Phase 1)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의 빠른 파급을 위한 응용연구 및 실증연구(Phase 2) 투자를 확대
- 바이든 1기 행정부에서 청정에너지실증국의 신설로 과학국(기초과학)→응용과학국(응용과학)→청정에너지실증국(실증)으로 이어지는 청정에너지 R&D 전주기에 대한 단계별 전담조직이 완비되며, 바이든 대통령 연임 시 청정에너지 R&D 성과 창출이 본격화될 전망

FY2018 분야별 R&D 예산 책정 규모



자료: AAAS, 유진투자증권

---

02

##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 미국과 EU의 Green Push

## 미국 SEC / EU ISSB, ESRS의 구체적인 ESG 기업 정보 공개 요구

- 미국 조달 시장 참여자들에게 Scope3를 포함한 탄소배출량, 중대 기후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보고와 SBTi(과학기반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기반의 감축목표 수립을 요구하는 규칙 발표 → [캘리포니아는 2027년부터 Scope 3까지 공시\(연매출액 10억달러 초과 기업\)](#)
- EU 2024년부터 500인 이상 상장 기업에게 중요한 ESG정보 의무적으로 공개 요청. 기준에 비해 기후변화, 환경, 인권, 노동 등 세부화 시켜 구체적으로 보고 → [EU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은 Scope 3 공시를 의무화](#)
- Scope 3의 경우 경계가 애매하고 기업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어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소식. 바이든의 재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판단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참여자들에게 친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요구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s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to Strengthen the Security and Resilience of U.S. Food and Agriculture

[BRIEFING ROOM](#) [STATEMENTS AND RELEASES](#)

Today President Joe Biden signed National Security Memorandum-16 (NSM-16) to strengthen the security and resilience of United States food and agriculture. The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builds on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ongoing work to ensure that American families have access to safe, affordable food, that America's producers are able to get their goods to market, and that the American food and agricultural system is better prepared for threats that may harm the health of crops and livestock and cause shocks to the cost or availability of food.

자료 : White House. 유진투자증권

EU, 2024년부터 주요 상장 기업에게 중요한 ESG정보 공개 의무 지침 수립



ESG REPORTING / GOVERNMENT

### EU Lawmakers Adopt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Rules

 Mark Segal | 0 Comments | November 10, 2022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 바이든 재선 시 미국 상장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화 확정 전망

## SEC의 공시 의무 내용 상세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리스크를 '지속적', '비교 가능한' 정보 기준 표준화하고 의무적으로 공시</li> <li>상장기업들은 기후관련 리스크들이 사업, 전략,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해야 함</li> </ul>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 예정</li> <li>기후관련 공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많은 회사들이 탄소 배출량, 기후관련 목표를 공시 자료에 첨부하고 있지만 기준이 달리 큰 차이를 보임</li> <li>공시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지속적', '비교 가능한' 기준을 표준화 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li> <li>기업들의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탄소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이 자리잡게 될 것</li> </ul>
필수 공시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과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li> <li>②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이 <b>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 중기, 장기</b>로 구분하여 제공</li> <li>③ 확인된 기후 관련 위험이 <b>회사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예상인자</b>에 대한 정보</li> <li>④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프로세스 유효성</li> <li>⑤ <b>기후 위험 관리 관련 전환 계획</b>을 채택한 경우, 전환 위험을 식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관련 지표와 목표를 포함한 계획</li> <li>⑥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b>전략의 탄력성을 평가하는 경우, 시나리오와, 가정, 예상되는 주요 재정적 영향</b></li> <li>⑦ 만약 회사가 <b>내부 탄소 가격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격과 측정 방법</b>에 대한 정보 제공</li> <li>⑧ Scope1 배출, Scope2 배출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절댓값으로 제공</li> <li>⑨ Scope3 배출 정보가 '중요'하면 공지, 회사가 Scope3 배출 관련 타겟이나 목표를 설정했다면 관련 정보 제공</li> <li>⑩ 탄소관련 목표를 설정했으면, 배출 범위, 도달 방법, 진전 여부 공시. 또한 탄소 상쇄 또는 RECs를 사용한다면 관련 정보</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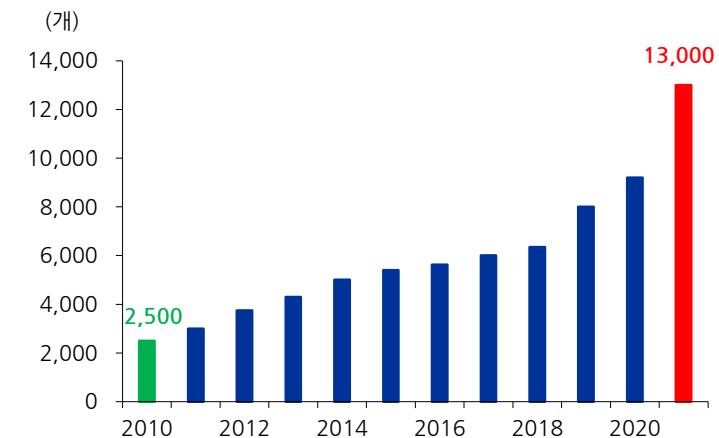
자료 : SEC, 유진투자증권

## Scope 배출 정의

구분	내용
Scope 1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발생원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Scope 2	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한 전기 및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Scope 3	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자료 : SEC, EPA, 유진투자증권

## CDP에 기후관련 공시 기업 급증



자료 : CDP, 유진투자증권

# 미국과 EU, 천연가스 사용 억제

##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의 유해성 연구결과 기반으로 주택과 건물 천연가스 사용 규제

- 뉴욕시는 2030년까지 전력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 [뉴욕주 신축건물 천연가스 사용 금지 제안, 2025년 소규모 빌딩을 시작으로 2028년 대형 빌딩에 적용, 2030년 신규 천연가스 히팅시스템 설치 금지](#)
- 현재 미국 가정의 40%가 가스 스토브에 의존, 미국 연방정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천연가스스토브 억제하는 규정을 검토 중
- [EU 주요국 관계기관과 NGO, 가정내 가스 스토브가 70만명의 어린이 천식과 인과관계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다만, 텍사스, 아리조나 등에서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 권리 침해를 언급하며 반대하는 의견, 12개 주에서 천연가스 사용금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뉴욕주 시민 53%가 가스히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주목할 필요

### 미국 뉴욕주, 신규 빌딩에 천연가스 사용 규제 제안

**New York becomes the first state to ban gas stoves in new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BY C MANDLER  
UPDATED ON: MAY 3, 2023 / 8:20 PM / CBS NEWS

f    t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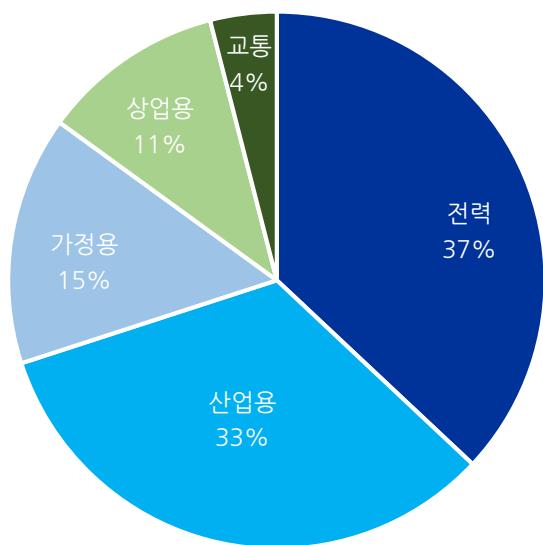
**NEW YORK NATURAL GAS LAW**

- ▶ Bans gas stoves, furnaces
- ▶ Only applies to new construction
- ▶ Phase-in begins **2026**



자료: CLASP, 유진투자증권

### 미국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비중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 미국과 EU, 천연가스 사용 억제

EU 국가들의 가정용 가스스토브 사용 및 유아 천식 환자 현황

	Households cooking on Gas	Households of children	Children with asthma in 2003	PAF	Children with current asthma Due to Gas cooking
이탈리아	68.70%	9,190,198	11.40%	22.40%	234,605
프랑스	31.70%	9,921,574	12.60%	11.70%	146,885
스페인	33.50%	7,106,726	13.90%	12.30%	121,845
네델란드	65.40%	2,604,501	13.00%	21.50%	72,961
루마니아	64.90%	2,924,129	8.90%	21.40%	55,744
폴란드	43.70%	5,752,685	6.10%	15.50%	54,419
헝가리	60.40%	1,468,373	7.80%	20.20%	23,176
벨기에	26.70%	1,761,628	8.50%	10.10%	15,098
아일랜드	21.10%	750,543	21.50%	8.10%	13,136
독일	2.90%	12,735,159	8.00%	1.20%	12,260
포르투갈	10.00%	1,549,900	21.50%	4.00%	9,183
라트비아	39.80%	256,702	8.00%	14.30%	2,956
크로아티아	5.40%	624,001	14.70%	8.70%	2,836
오스트리아	42.10%	1,368,972	7.20%	2.20%	2,125
리투아니아	1.50%	413,788	5.20%	15.00%	1,554
스웨덴	16.90%	1,535,088	7.00%	0.60%	1,153
에스토니아	2.50%	201,633	2.50%	6.60%	641
불가리	0.60%	1,056,164	12.00%	1.00%	604
핀란드	0.60%	842,189	4.80%	0.30%	163
그리스	0.40%	1,584,304	5.50%	0.20%	120
슬로바키아	68.50%	829,866	7.70%	22.30%	
룩셈부르크	48.00%	95,149	4.50%	16.80%	
체코	49.20%	1,627,765		17.10%	
슬로베이나	9.90%	315,999		4.00%	
덴마크	2.60%	880,415		1.10%	
키프로스	-	183,519			
몰타	-	67,115			
EU 합	32.60%	67,678,078		12.00%	771,464

자료 : Gas Report by GLASP, 유진투자증권

가스스토브, 전기 인덕션으로 변경 시 유아천식 예방 가능



자료 : 유진투자증권

# EU, CBAM(탄소국경세) 발효, 미국도 바이든 재선 시 도입 유력

##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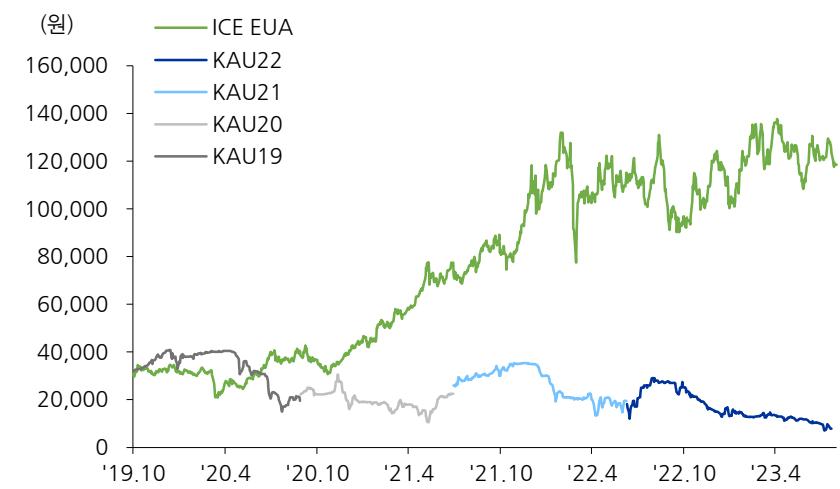
- 현지시간 [2023년 5월 16일 발효](#)
- 환경규제 약한 EU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역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 추가 과세
- [2026년부터 시행](#)되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
- 바이든 정부, 재무부 중심으로 실행 계획 마련하는 중

### CBAM 주요 내용

법안명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목적	EU내 탄소배출량 감축 (Fit for 55의 핵심법안중 하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U역내로 제품이 수입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ETS에 기반한 탄소가격 부과</li><li>▪ EU내의 수입업자를 통해 탄소가격에 해당하는 CBAM인증서 구매 후 EU당국에 제출할 의무 부과</li></ul> <p>*ETS: EU탄소권 배출 거래제</p>	
시행일	2023/10/01 ~ 2025/12/31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 보고
	2026/01/01 ~	탄소 함유량 보고 및 CBAM구매 의무화
시행업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업종에 우선 적용	

자료: EU, 유진투자증권

### 유럽 탄소배출권(ICE EUA)와 한국 탄소배출권(KAU)의 가격 추이



자료: EU,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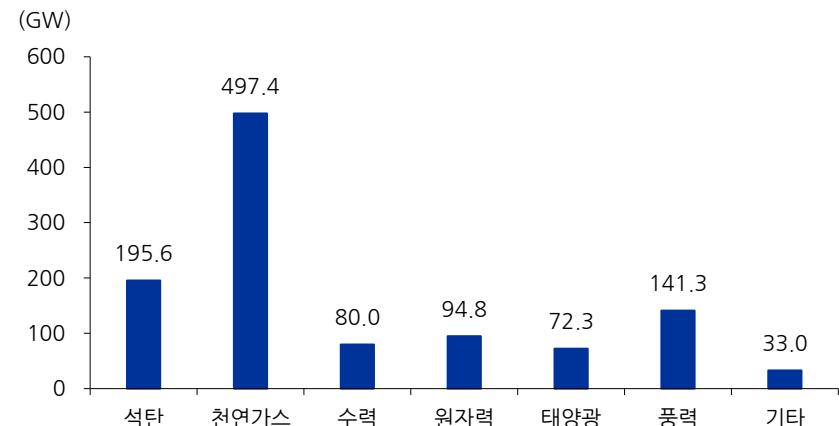
#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 그린산업 확대 가속화

## 바이든과 샌더스의 기후변화 관련 공동 정책

분야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국면임을 인식해 <a href="#">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a>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 원위치로</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배출 제로</b></li> <li>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 설치 목표</li> <li>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전망 건설</li> </ul>
에너지 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2030년까지 신축 건물 100%에 탄소배출 순제로 적용</b></li> <li>5년내에 4백만개의 빌딩과 2백만채의 가구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li> <li>에너지 빈곤층 없애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도입하고 관련 금융 지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 변경</li> </ul>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캘리포니아식 강력한 자동차 연비규제 시스템 도입. 2030년 신차 기준 클린카 비중 50% 목표</b></li> <li>5년 내에 50만대의 스쿨버스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 3백만대의 공공차량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li> <li>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li> <li>중고차 교환 프로그램 도입해 탄소배출 제로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li> <li>탄소배출 차 생산업체들의 신설과 구공장의 전환에 보조금과 국가보증 융자 등 지원</li> <li>공공교통의 탄소배출 제로 운송 수단도입 확대</li> <li>항구의 탄소배출 저감 위한 투자, 철도 부문도 고속철 확대 등과 공기오염 저감 노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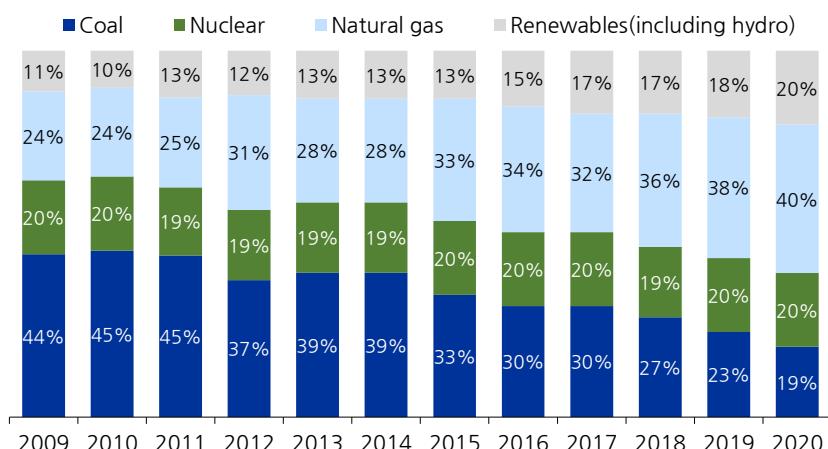
자료 : 바이든-샌더스 공동 정책발표, 유진투자증권

## 미국의 발전 설비 현황



자료 : 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유진투자증권

## 연료별 발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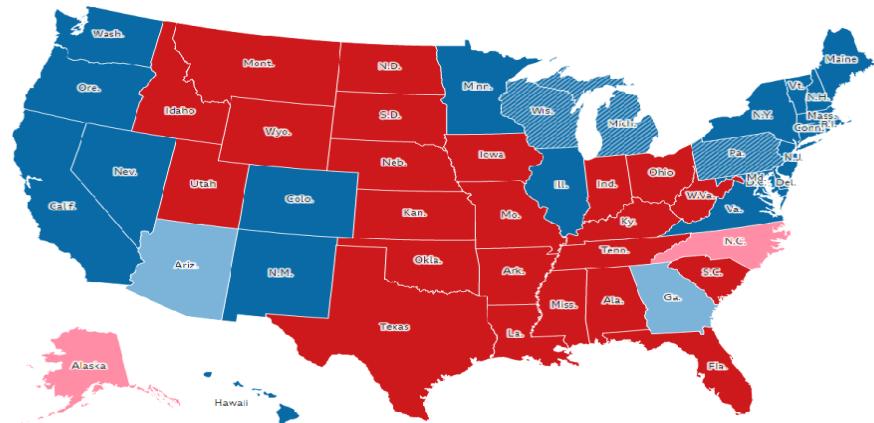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 바이든 정부, 그린산업 일자리 확대가 정책 중심

## 'Swing State'에 전기차 등 그린 산업 일자리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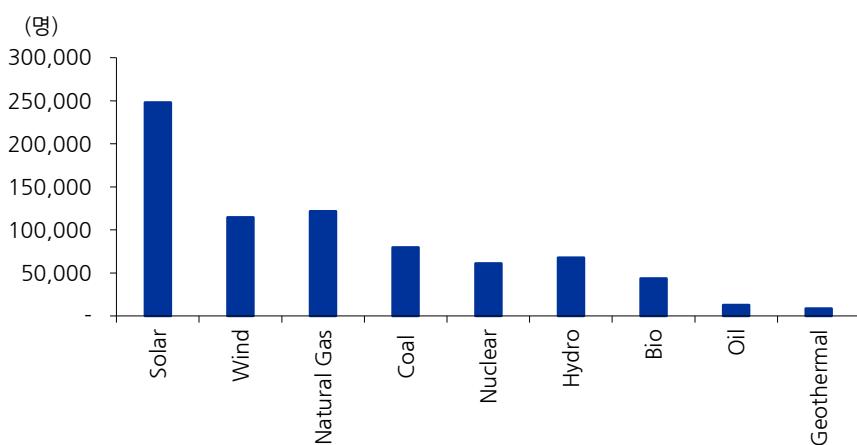
- 미시간, 조지아 등에 전기차 관련 신공장 유치가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
- 2백만명 이상인 내연기관차 고용인력과 화석연료를 클린카/클린에너지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

미국 대선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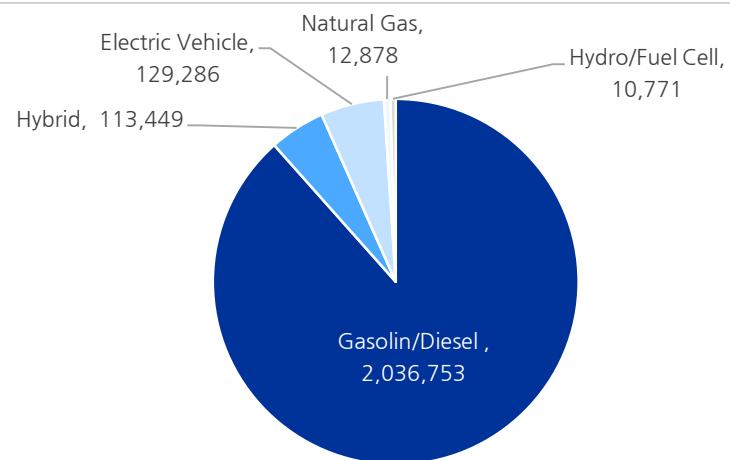
자료: BBC, 유진투자증권

## 전력원별 고용수, 그린에너지가 압도



자료: USEER 2020, 유진투자증권

## 내연기관차 고용인력의 클린카 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



자료: USEER, 2020,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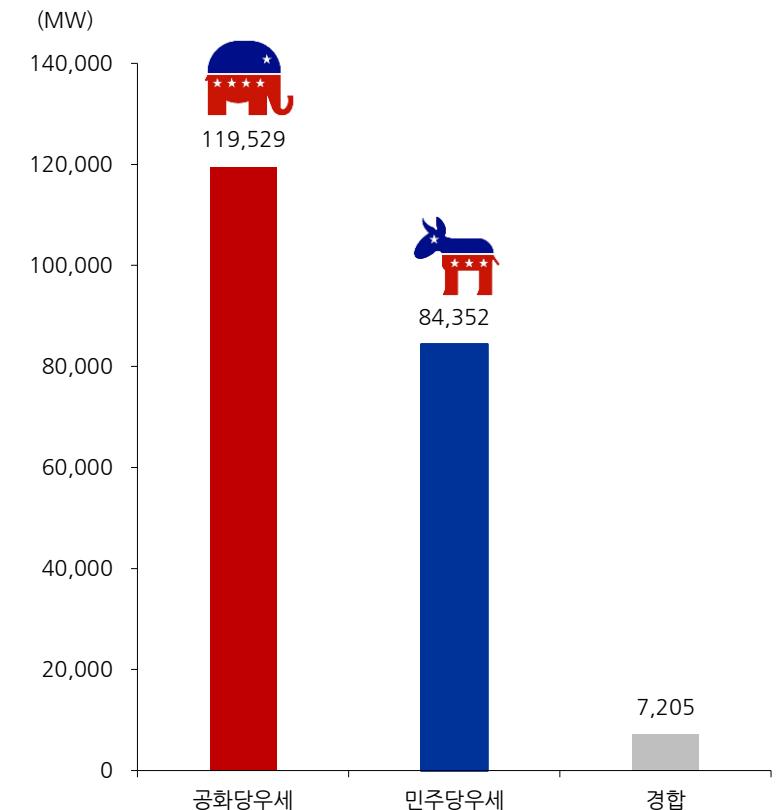
# 바이든 그린부양안 IRA, 글로벌 그린산업 성장 박뱅

IRA+인프라 부양안 4,4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 그린산업에 집행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내용	예산액(십억달러)	인프라 부양법안 내용	예산액(십억달러)
Wind/Solar/Storage Tax Credit	128	Grid Enhancement	28
Manufacturing Tax Credit	37	CCUS Demonstration	11
Residential Efficiency/Improvement	36	Hydrogen Hub	9.5
Nuclear Tax Credit	30	Clean Vehicle Procurement	7.5
Clean Hydrogen Tax Credit	13	Clean Vehicle Charging Infra	7.5
Clean Vehicle Tax Credit	12	Nuclear Credit	6
Biofuel Incentives	6	Plugging Orphaned Wells	4.7
CCUS Tax Credit	3.2	Advanced Reactor Program	3.2
USPS Clean Vehicle Procurement Fund	3		
Clean Vehicle Factory Retool Fund	2		
Grid Loan/Grant	2.86		
Clean Vehicle Refueling/Recharging	1.7		
Methan Monitoring/Mitigation	1.5		
Clean Vehicle New Factory Loan	20		
National Climate Bank Financing	27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정당 우세 지역별 풍력, 태양광 설치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IRA시행 후 미국 각지에서 그린에너지 제조업 증설 계획 발표

## IRA 시행 후 발표된 미국 내 풍력 제조업 증설계획

회사	예정일	고용	풍력(육상, 해상)		주
			내용		
GE Vernova	TBD	220	나셀 생산을 위한 시설 건설, 220개의 일자리 중 35%는 낙후지역에서 고용		NY
LM Wind Power	TBD	650	해상풍력용 윈드터빈블레이드 생산 시설 건설,		NY
			650개의 일자리 중 35%는 낙후지역에서 고용		
Siemens Gamesa	TBD	TBD	나셀 생산을 위한 시설 건설, 약 420개의 일자리 창출 및		NY
			현지에 5억달러의 투자금 유치		
Arcosa	3Q24	250	윈드 타워 생산시설 건설에 5,500만~6,000만 달러 투자,		NM
			250개의 일자리 창출		
CS Wind	2024	850	연산 10,000개 타워 생산 규모로 공장 증설, 850개의 일자리 창출, 2024년에 증설 1단계 완료		CO
Flender Corporation	TBD	50	기어박스 생산시설 증설, 50개의 일자리 창출, 140개의 기존 일자리 재훈련		IL
GE Vernova	TBD	TBD	나셀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2,000만 달러 투자		FL
Nucor Steel	22/12/31	400	연산 120만톤 규모의 해상풍력용 후판 공장 2022년 말에 준공,		KY
			총투자금 17억달러, 400개의 일자리 창출		
Siemens Gamesa	23/01/01	250	최근에 폐쇄한 윈드터빈 생산 공장 재가동		IA
Siemens Gamesa	23/04/31	TBD	캔자스의 나셀공장 23년 4월 램프업 목표로 재가동 준비		KS
TPI Composites	2024	700	IRA로 인해 GE향 블레이드 생산공장 재가동		IA
			(2021년 폐쇄, 2024년 생산목표), 700개의 일자리 규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IRA로 인해 미국 각지에서 그린에너지 제조업 증설 계획 발표

## IRA 시행 후 발표된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 증설 계획

회사	예정일	일자리	Solar		주
				내용	
Adion Solar	2H23	NA	연간 캐파 500MW에서 시작해 1GW수준으로 증설하는 패널 공장 2023년 하반기 건설 예정.		GA
Alpha Steel	2H23	TBD	토크튜브를 포함한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철강 부품 생산 예정		
Canadian Solar	NA	NA	연산 5GW의 태양광 설비 공장 건설과 관련된 추측이 있음		TBD
CubicPV	2025	1,500	10GW규모의 실리콘 웨이퍼 공장 미국에 건설 예정, 1,500명의 일자리 규모		TBD
Enel	2024	1,500	10억달러 규모의 6GW규모 태양광 설비 패널 공장 건설, 미국 현지 수요 대응		TBD
Enphase Energy	2H23	NA	1GW용량의 마이크로인버터 공장 23년 2분기에 건설 예정		TBD
First Solar	2025	700	연산 3.5G의 수직계열화 된 4번째 공장 미국 남동부에 건설 예정. 태양광 박막패널 생산		AL
First Solar	TBD	850	OH 북서부 공장을 1억 8,500만달러 투자해 0.9GW규모로 확장		
First Solar	1H23	TBD	OH의 제3공장을 3.3GW 캐파에서 3.5GW 캐파로 증설		OH
GameChangeSolar	TBD	TBD	미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태양광 부품의 생산능력을 24GW로 증설		다중
Hanwha Advanced Materials GA	24/06/01	160	1억4,700만달러 투자, 총 16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GA
Hanwha Qcells	2024	2,500	25억달러 투자해 실리콘잉곳, 웨이퍼, 셀 등 생산공장 건설, GA에서 2,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GA
Hanwha Qcells	4Q23	TBD	태양광 패널 조립라인 현재 2GW 수준에서 5.1GW 수준으로 증설 예정		GA
Heliene	24/06/01	60	7백만 달러 투자해 150MW규모의 기존 공장 장비 업그레이드, 300MW수준으로 캐파 확대		MN
Hounen Solar	TBD	200	1GW 규모의 Crystalline silicon PV Panel 제조 공장 설립 예정. 3,300만 달러 투자, 200개 일자리 창출		SC
Illuminate USA	4Q23	850	6억달러 투자해 공장부지 매입. 태양광 모듈 캐파 5GW규모		OH
JA Solar	4Q23	600	6,050만 달러 투자해 2GW의 PV패널 제조시설 건설. 23년 4분기 납품 예정		AZ
Linton Crystal Technologies	4Q23	75	Furnaces 장비와 와이어절단기 등 태양광 제조 장비 공장 건설 부지 탐색 중		TBD
Meyer Burger	TBD	TBD	22년 말 연간 400MW수준의 생산능력을 향후 1.5GW까지 증설할 예정		AZ
Mission Solar	2024	150	TX주 공장을 1GW수준으로 증설 예정. 현재 200MW수준		TX
Mitrex	1Q24	250	태양광 패널 공장 위치 발표할 계획, 2.5GW규모, 250개 일자리 창출 예정		TBD
PV Hardware	23/05/30	TBD	6GW규모의 태양광 트랙커 제조시설 23년 중에 가동 예정		TX
REC Silicon & Mississippi Silicon	2023	TBD	19년에 가동중단한 공장 재가동 예정.		WA
Seraphim Energy Group	1Q24	500	2GW 규모 이상의 PV모듈 공장 건설후 24년 풀 가동 예정		TX
SolarEdge	2023	NA	사업계획 및 공장부지 탐색 중		TBD
Trading Philadelphia	2023	TBD	400/500 mono-PERC 태양광 모듈 생산. 2021년 1GW로 시작해 향후 1.2GW수준으로 증설 예정		T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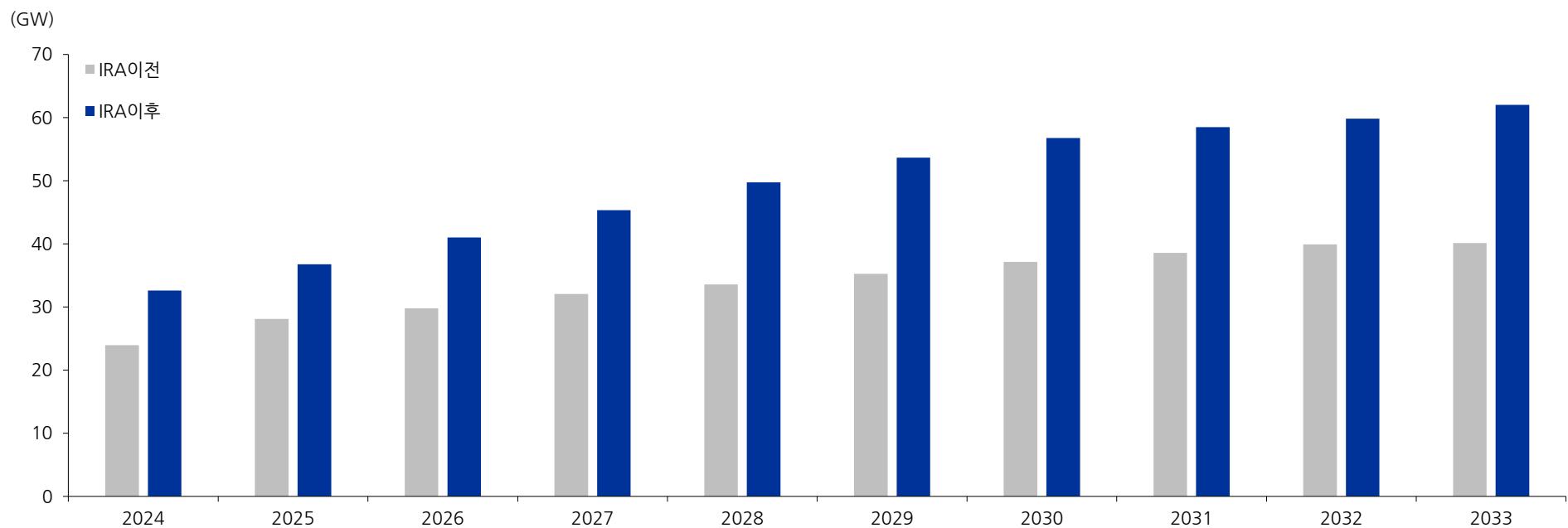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IRA로 인해 미국 각지에서 그린에너지 제조업 증설 계획 발표

IRA 발표 후 지난 1년간 총 155GW에 달하는 신규 태양광 설비 증설 계획 발표

- 모듈: 85GW, 셀: 35GW, 웨이퍼: 20GW, 인버터: 7GW 등
- IRA로 인해 향후 10년간 태양광 증설 전망치도 기존대비 48% 증가(약 160GW)

IRA 시행 후 발표된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 증설 계획



자료: SEIA, Wood Mackenzie Power & Renewables Solar Market insight report, 유진투자증권

# IRA AMPC 상세안

## IRA의 산업별 첨단생산세액 요건 구체화

- 적용기간 별 보조금 차등 지급, 높은 생산능력으로 초기에 밸류체인 공급 시 최대 Credit(2023~2029년 100%, 이후 2033년까지 0%로 점진적 감소)
- 미국 내 생산공장 보유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업체들, 생산량에 따른 이익개선 시작

## IRA의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상세안

대상(기준)		크레딧	적용기간	기타 중요 사항
태양광	셀(W)	\$0.04	- 2023~2029년 Full Credit 적용 - 2030년 75% - 2031년 50% - 2032년 25% - 2033년 0%	- 최대 5년까지 직접 지급 요청 가능 - 크레딧 이전 가능
	웨이퍼(m <sup>2</sup> )	\$12		
	폴리실리콘(kg)	\$3		
	백시트(m <sup>2</sup> )	\$0.40		
	모듈(W)	\$0.07		
풍력	블레이드(W)	\$0.02	- 2023~2029년 Full Credit 적용 - 2030년 75% - 2031년 50% - 2032년 25% - 2033년 0%	- 최대 5년까지 직접 지급 요청 가능 - 크레딧 이전 가능
	나셀(W)	\$0.05		
	타워(W)	\$0.03		
	고정식 하부구조물(W)	\$0.02		
	부유식 하부구조물(W)	\$0.04		
배터리	배터리 활물질(생산원가)	10%		
	셀(KWh)	\$35		
	모듈(KWh)	\$10		
	모듈(셀 사용 없는, KWh)	\$45		
	핵심 원자재(생산 원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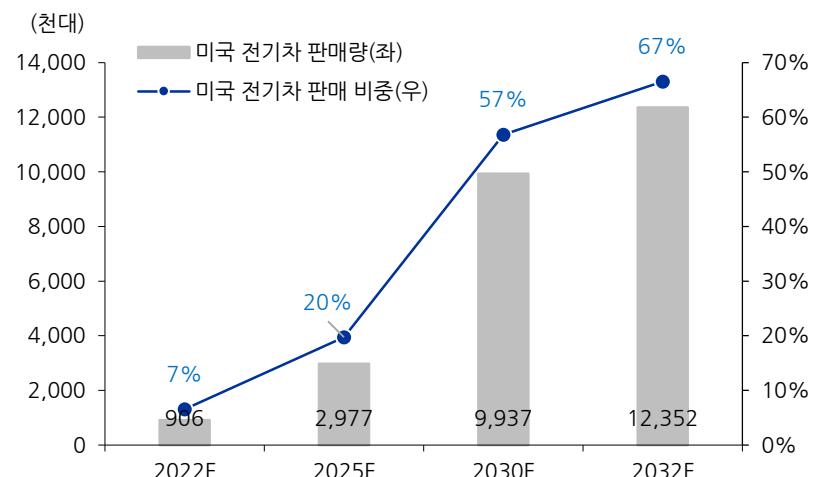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미국의 가세로 전기차 시대의 완성

## 중국,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전기차 판매 급성장 모드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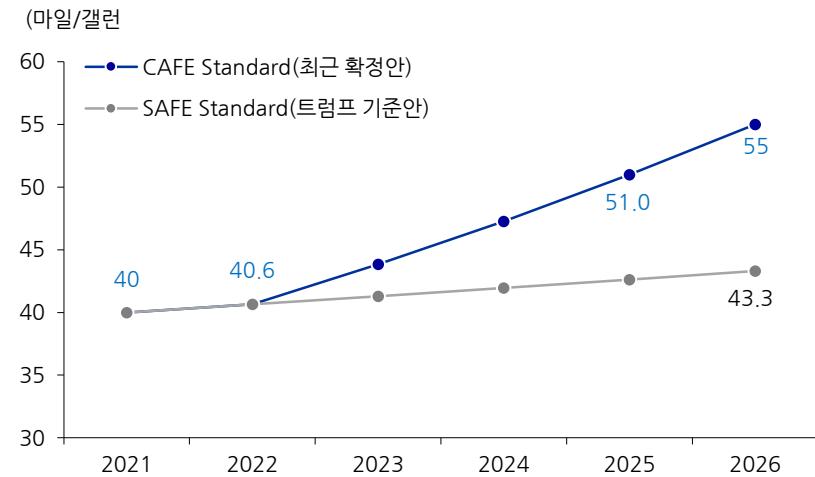
- 바이든 정부, 기존의 연비규제를 한 단계 더 강화 예정
- 2032년 기준 미국 전기차 비중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
- IRA로 시장 성장의 가장 큰 모멘텀 확보

###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와 비중 예상치



자료:EV-Sales, 유진투자증권

### 미국 연비규제 강화



자료:EPA, 유진투자증권

# 2022 IRA 법안 - 배터리

## 배터리 구성 부품, 물질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

- 배터리 핵심광물(3,750달러), 부품(3,750달러)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1) 미국에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을 의무적 확보 해야하며, 2) 우려 외국집단의 부품(2024년), 광물(2025년)은 사용이 금지됨
- 특히, 배터리 광물, 가공 등을 FTA 국가 한정에서 일본 등 'FTA에 준하는 국가'로 확장,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채취한 광물을 이용해 FTA 준용 국가에서 50% 이상 부가가치 창출 시 보조금 수령 가능하며,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에 준하는 물질'로 지정

IRA 법안 내용

세액공제	비중	내용
최대 \$7,500/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터리 광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북미에서 재활용</li><li>▪ <b>'25년부터 우려외국집단에서 조달한 광물을 포함할 경우 보조금 배제</b></li><li>▪ '24년 이전 40%, 매년 10%씩 상승, '26년 이후 80% 이상</li></ul>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북미 제조 비율 50% 이상</li><li>▪ <b>'24년부터 우려외국집단에서 조달한 부품을 포함할 경우 보조금 배제</b></li><li>▪ '24년 이전 50%, '24~25년 60%, '28년 이후 100%</li></ul>
	전제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기차 제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기차 최종 생산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법안 발효 이후 즉시 적용)</li></ul></li><li>2) 보조금 대상 전기차 가격 상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벤, SUV, 픽업트럭은 8만달러, 세단 등 기타 5.5만달러 이하</li></ul></li><li>3) 보조금 대상 구매자 소득 조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부합산 30만달러, 가장 22.5만달러, 개인소득 15만달러 이하</li></ul></li></o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핵심 광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50종 광물</li><li>▪ <b>구성 부품: 양극전극, 음극전극, 고체금속전극, 분리막, 액체전해질, 고체전해질, 셀, 모듈</b></li><li>▪ <b>구성 물질: 양극재, 음극재, 음극박, 호일, 고체전극용금속, 바인더, 전해질, 전해염, 첨가제</b></li></ul>

# FEOC 세부 조항

## DOE, FEOC 세부지침 발표

- IRA Section 30D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구성품) 또는 핵심광물이 FEOC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7,500\$)에서 제외됨.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안은 작년 12/1에 발표
- 가이던스의 세부 내용은 1) 해외 기업/기관(Foreign Entity), 2) 관할권 적용(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3) 외국 정부(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senior foreign political figure, senior officer), 4) 직간접 지분율(Owned by, Controlled by), 5) 실효적 지배권 (Effective control, subject to the direction of) 등으로 구성

### FEOC 개념도

해외 기업, 기관/누적 지분*	<25%	25%~50%	>50%
중국 법인	FEOC	FEOC	FEOC
중국 법인의 자회사들	FEOC	FEOC	FEOC
법인의 중국 외 자회사 또는 JV	<25%	Not FEOC	Not FEOC
	20%~50%	Not FEOC	Not FEOC
	>50%	미정	FEOC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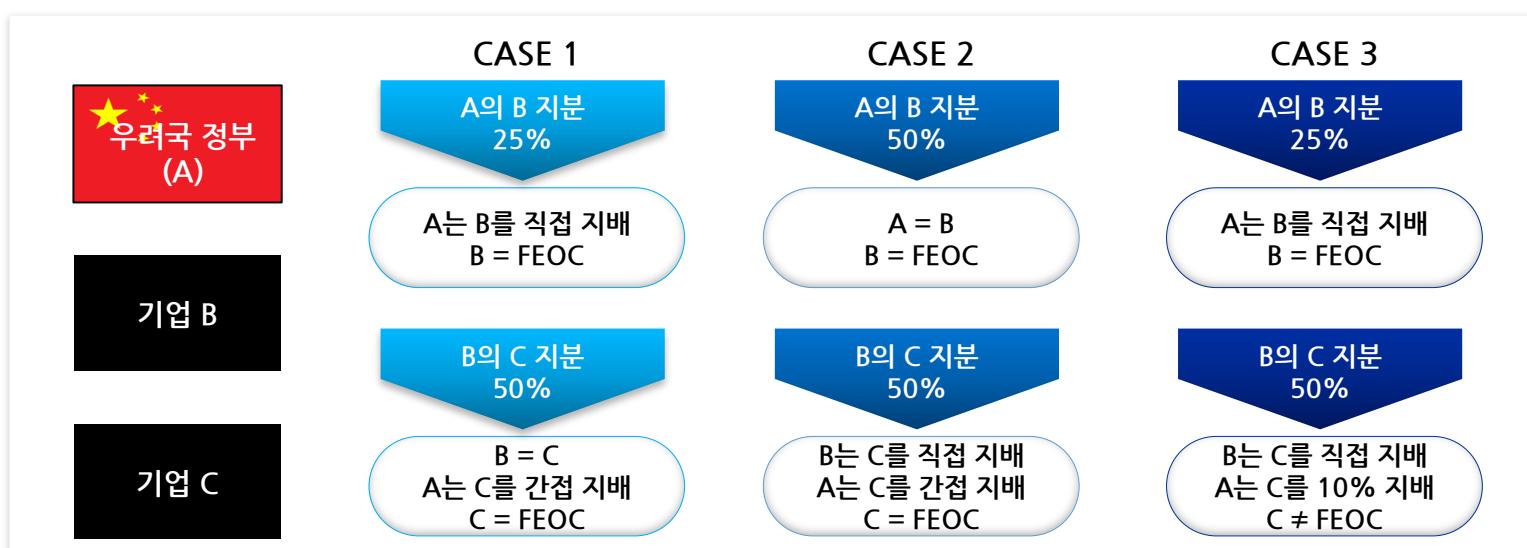
\*: ①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지배 정당 또는 집권당, ③현재 또는 이전의 고위 정치 인사

# 구체화된 FEOC 조항

FEOC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나, 지분율 변경 등으로 추가 투자비 발생 전망

- 외국 기업이 1)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2)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 2024년부터 청정 차량에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수 없고 2025년부터는 청정 차량에 FEOC가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을 포함할 수 없게 됨
- 25%의 지분율 자체는 높아 보이지만, 제3국 법인을 만들거나 출자 구조를 변경하면 중국 업체들이 진입 가능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non FEOC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의 부분적인 허용이라고 판단
- 한편 미국 업체들은 오히려 보조금 수령을 포기하고 더욱 저렴한 중국의 배터리 소재 및 광물을 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 한국 업체들 중에서는 자금력이 높은 업체들이 유리할 것. 중국 업체들과 JV 구조 및 지분율 변경이 필요한데 이 때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

## FEOC 지분율 기준



# FEOC의 예외 계약 조항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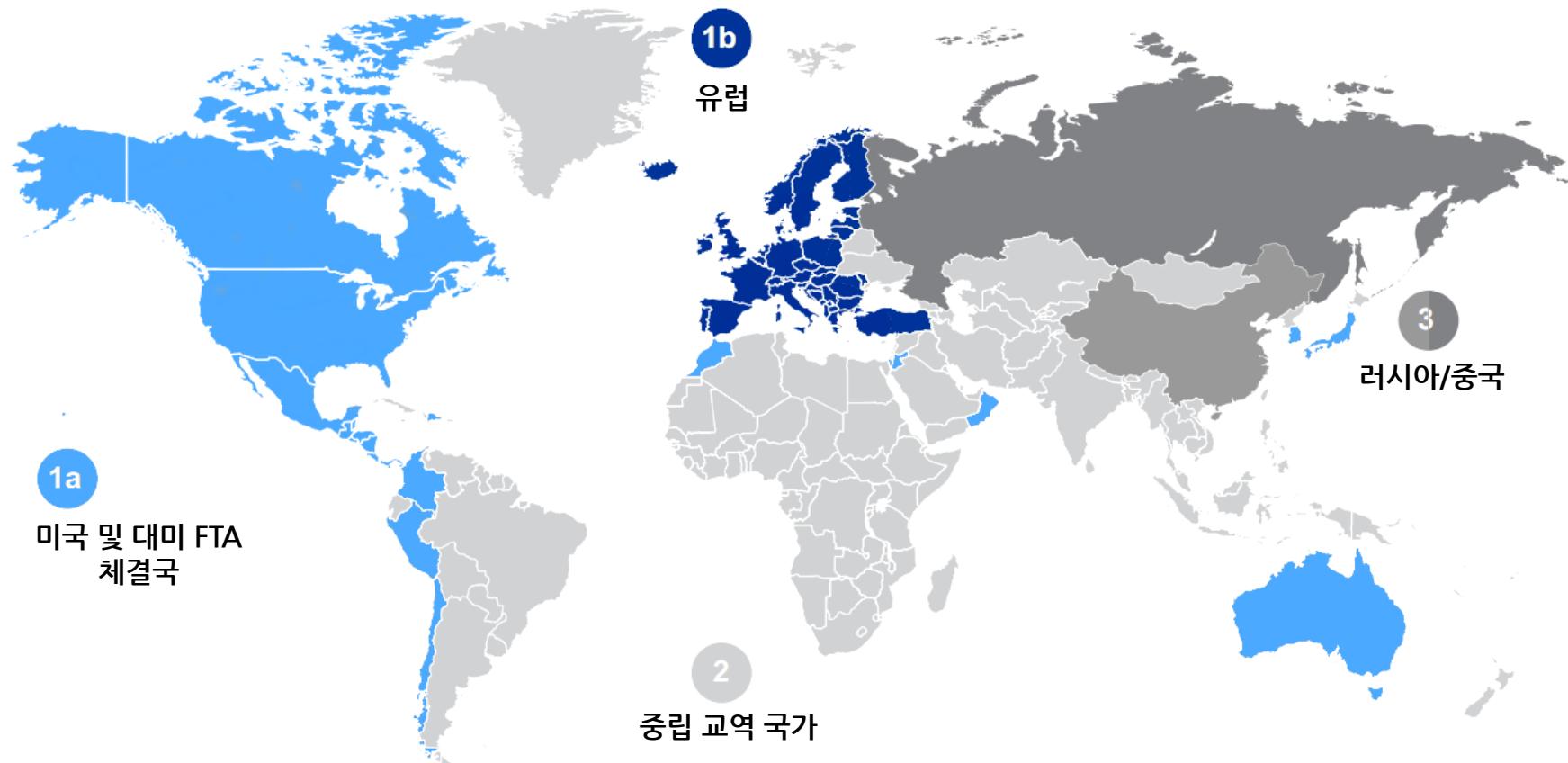
## 용어의 구체적 정의

Terminology	설명
해당 국가(Covered Nation)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해외 기업/기관(Foreign Entity)	1) 외국 정부 2)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이 아닌 자연인 3) 외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둔 파트너십, 협회, 기업, 단체 또는 사람들의 조합 4)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1~3항의 외국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의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단체
관할권(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1) 해당 국가에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이 우려 국가에 있는 경우 2) 특정 배터리의 중요 광물, 구성 요소 또는 재료와 관련해 우려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해당 중요 광물의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제조 또는 조립에 관여하거나 해당 재료의 가공에 관여하는 경우
외국 정부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senior foreign political figure, senior officer)	1) 외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 2) 외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리 또는 대행기관 3) 외국의 집권당 또는 지배정당(예: 중국 공산당) 4) 현직 또는 전직 고위급 외국 정치 인사
직간접 지분율(Owned by, Controlled by)	지배력 판단 시 <b>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합산해 지배력 평가, 합작 지분 상한선 25%</b> 한 기업이 다른 하나 이상의 중간 기업을 통해 직/간접 적으로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를 누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FEOC 지배로 간주 * <b>직접 보유:</b> 우려 국가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 25% 누적 보유 시 직접 지배한다고 간주 * <b>간접 보유:</b> 모회사 기업이 자회사 기업의 지분 50% 미만 보유 시 간접 소유 비율 적용
실효적 지배권 (effective control, subject to the direction of)	실효적 지배는 계약자가 생산 수량 또는 시기를 결정하거나 생산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하거나 생산현장에 대한 접근을 계약자 직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생산에 중요한 장비를 유지, 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한 기업이 배터리의 특정 핵심 광물, 부품 또는 소재와 관련해 우려 국가의 정부에 의한 소유, 통제 또는 지시의 대상인 FEOC와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타 계약 체결하고, <b>FEOC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FEOC로 간주</b>
FEOC 예외 계약 조항	<b>FEOC와 계약 시 非FEOC 법인에게 5개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 시 FEOC에 의한 실효적 지배권이 없다고 간주</b> 1) 생산되는 중요 광물, 구성요소 또는 재료의 수량을 결정할 권리 2) 계약 기간 내 생산 및 생산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리 3) 중요 광물, 구성요소 또는 재료를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시 원하는 곳에 판매할 권리 4) 생산 현장의 모든 영역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를 관찰할 권리 5) 생산에 중요한 장비를 독립적으로 운영, 유지, 수리할 권리와 수출 통제 혹은 기타 지적 재산권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중요한 모든 지식 재산권, 정보,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료: DOE, 유진투자증권

# IRA 적용으로 배터리 및 광물 교역의 지역별 차별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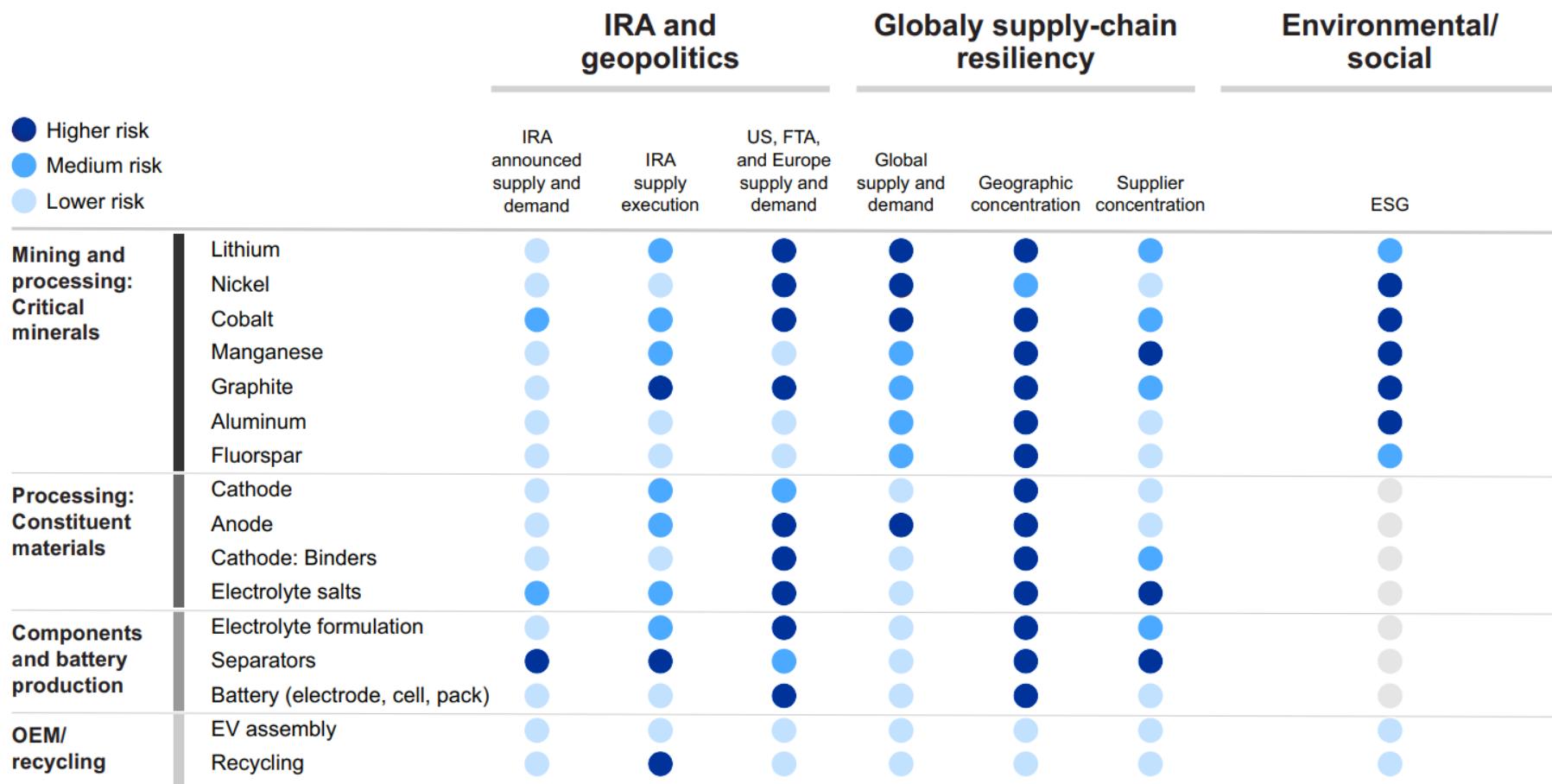
FEOC를 제외하면 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캐나다, 칠레, 호주, 한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 IRA 적용으로 품목별 신규 증설 불가피

리튬, 니켈, 코발트, 전해질염, 분리막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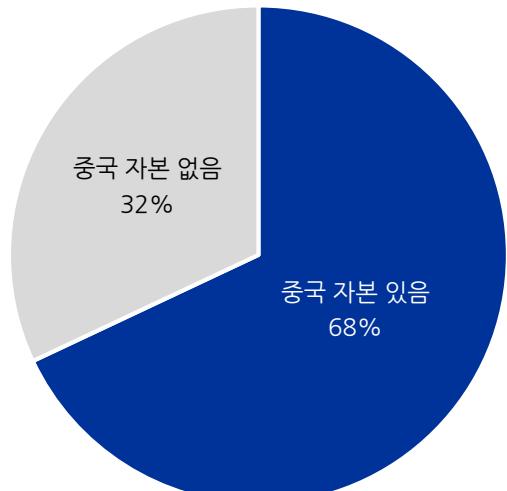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 특히, FEOC에서 자유롭지 않은 니켈

##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중국 자본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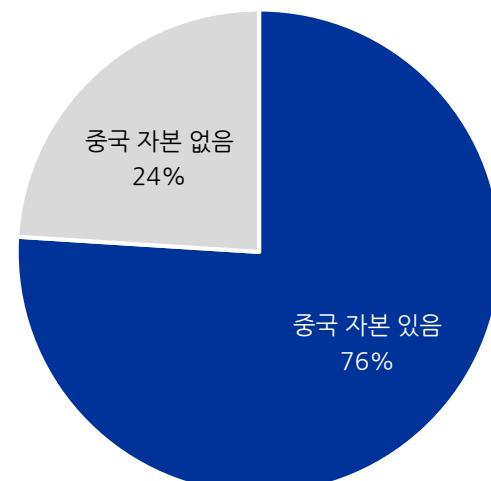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유 중이고, [제련소는 중국 자본이 많은 것이 특징](#). 인니 정부가 소유한 PT Antam 니켈 프로젝트, PT Vale 및 Eramet&Basf 합작 투자 제외,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 지분율이 25% 이상. 인니 니켈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은 Tsingshan Holdings, CNGR Advanced, 닝보리친, 화유코발트 등
- POSCO홀딩스 또한 인도네시아에 중국 제련소들과의 협업을 통해 니켈매트 5만톤(홀딩스 지분 49%, 닝보리친 51%), MHP 6.2만톤(홀딩스 지분 20%, 중국 회사 비공개 80%)을 투자 중인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POSCO홀딩스는 한국에 고순도니켈 5만톤(홀딩스 60%, CNGR 40%)과 SNNC 니켈매트 2만톤을 고순도니켈로 정제하는 공장(POSCO 100%) 및 전구체 11만톤(퓨처엠 20%, CNGR 80%)도 투자 중
- [해당 JV의 전략적 가치와 자금 형편에 따라 JV 지분율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편 인니 내 중국 업체들의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한국 니켈 제련소를 투자하고 있는 고려아연 및 LS의 가치는 부각될 것이라 전망
-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지분율 조정은 [인니-미국 FTA 체결 여부, 업체들의 지분구조, 그리고 LFP의 확장성 등이 변수](#)

인니 니켈 제련소 중 중국 자본 비율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인니 가동 중 니켈 제련소 중 중국 자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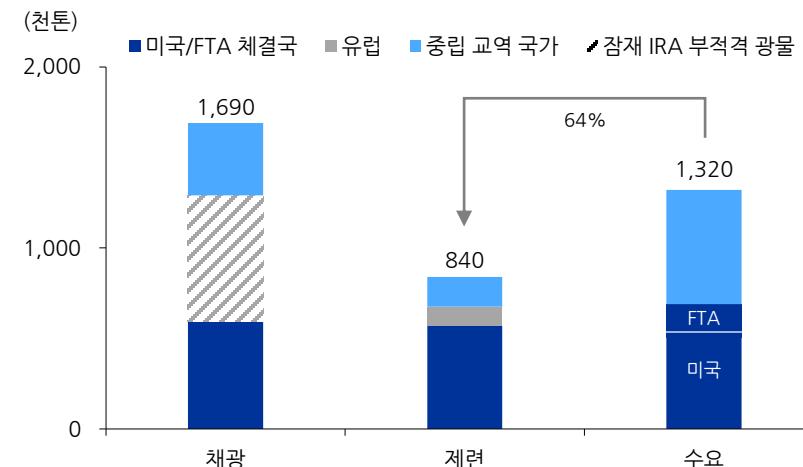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 전기차 배터리 광물별 수요, 공급 전망

## 핵심 광물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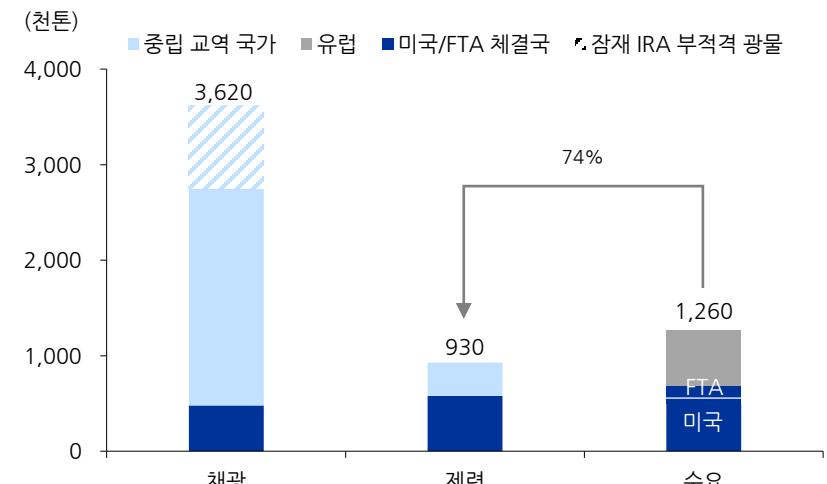
- 2030년 핵심 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기준, 미국 + FTA 체결국의 공급량으로 미국 수요 충족은 어려울 전망.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제련소가 집중되어 있는 점이 리스크
- 2030년까지 증설 예정되어 있는 제련 캐파 기준으로도 리튬 57%, 니켈 35%, 코발트 47%의 추가 캐파 확보 필요
- 부품은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의 캐파 확보가 시급. Section 45X AMPC 세부안에 해당 부품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may include...*)에 따라 기업별로 추가 투자가 발표될 것이라 전망

## 리튬: 건설 예정인 제련소 포함해도 수요 충족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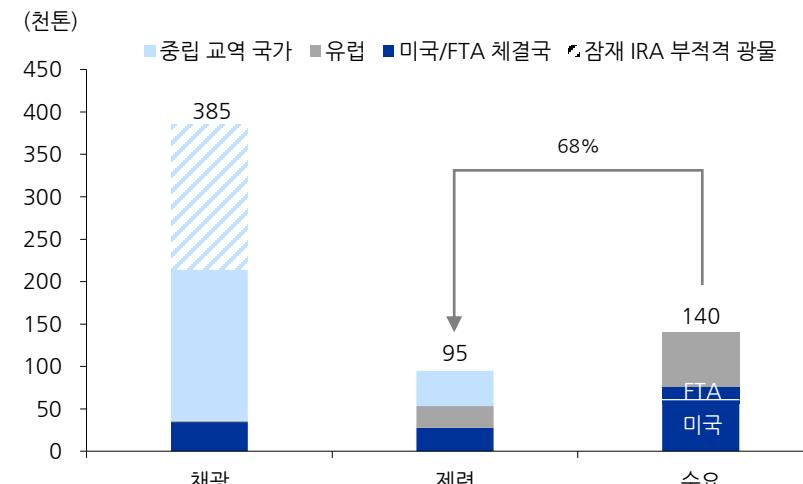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 니켈: 건설 예정인 제련소 포함해도 수요 충족 어려움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 코발트: 건설 예정인 제련소 포함해도 수요 충족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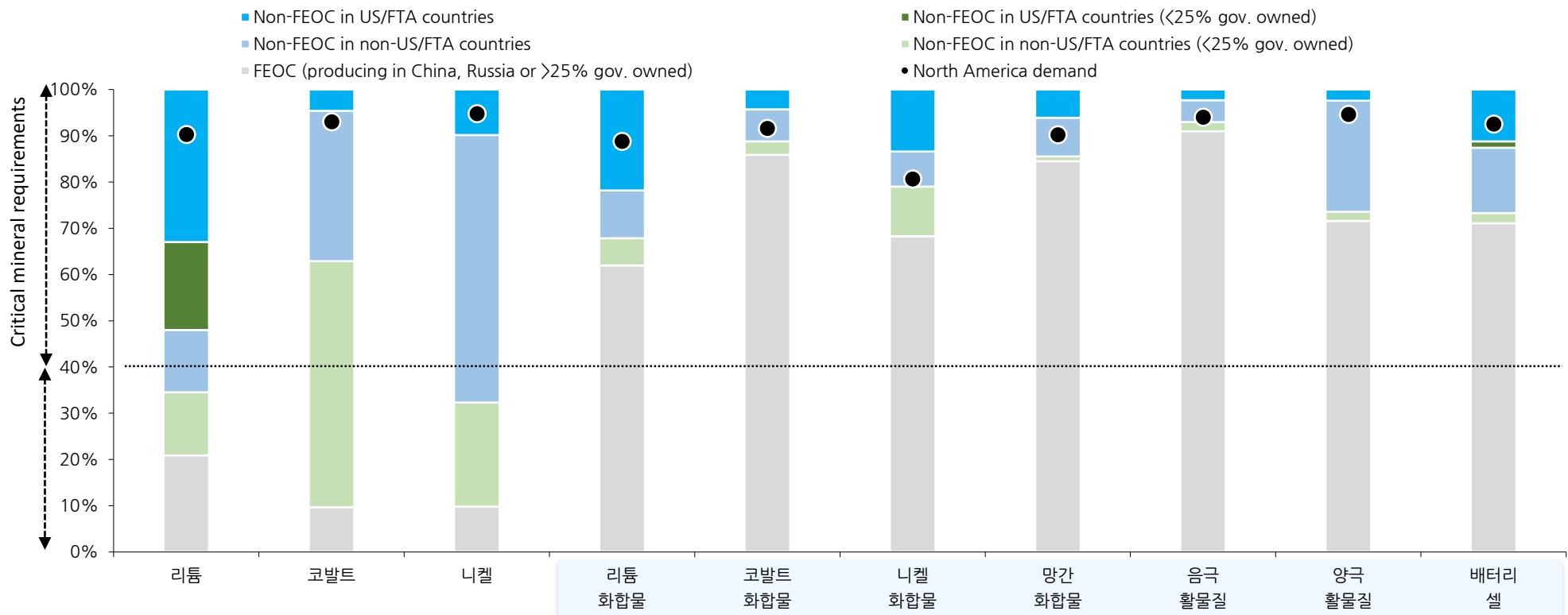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 IRA 세부 조항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단기간에 IRA 규정을 100%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25년부터 핵심 광물은 FEOC를 제외하고 최소 60%의 비중을 달성해야 함
-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금속화합물은 FEOC 비중이 최소 20%(리튬)에서 최대 90%(음극재)의 분포를 보임
- Non-FTA 국가, FEOC에 라이선스 제공 등 예외 조항 적용없이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5년 기준 배터리 광물 및 소재 FEOC 비중과 미국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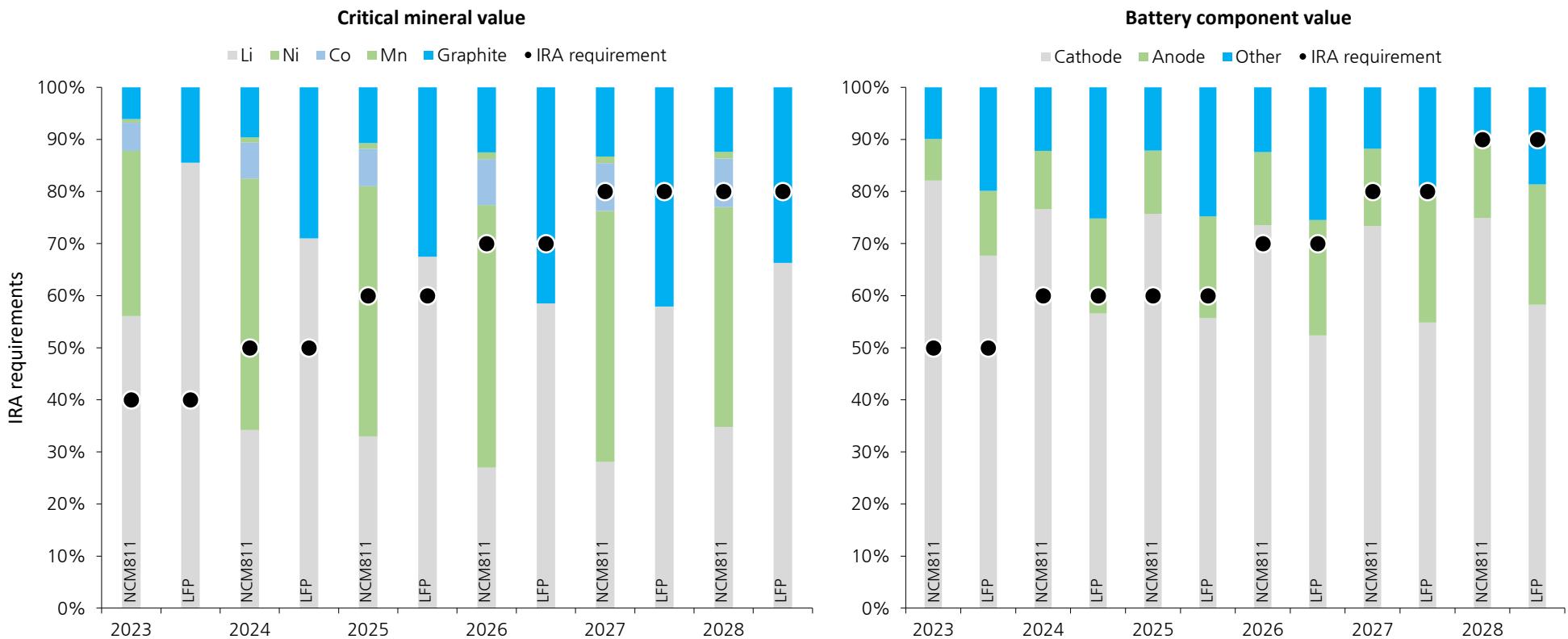
최저 기준 달성이 어려운 품목

#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재편 의지는 알겠지만...

## 핵심 광물(리튬, 니켈) 확보 방안 필요

- IRA 규정 충족을 위해서는 핵심광물과 부품에서 양극재(리튬, 니켈)의 구체적인 확보 계획이 필요
- 2023년 NCM811, LFP 기준, 리튬과 니켈의 합산 가치 비중이 75%를 넘기 때문
- 북/남미 및 FTA 체결국(ex. 한국) 제련소의 중요성 부각 불가피

## 연도별 배터리 내 핵심광물, 부품의 가치 비중 전망 및 IRA 규정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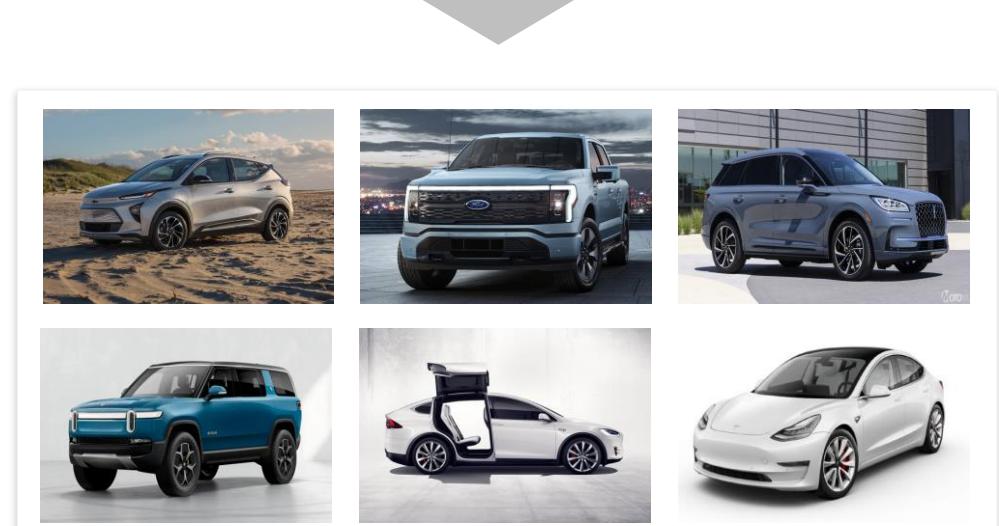


# (참고) 시기별 IRA 크레딧 적격 모델 목록

시기별 IRA 크레딧 적격 모델 목록(43 → 19개 차종으로 절반 이상 축소)

OEM	모델명	연식	유형	크레딧 규모	MSRP 상한
아우디	Q5 PHEV 55 TFSI e quattro	2023~2024	PHEV	\$3,750	\$80,000
BMD	X5 xDrive50e	2024	PHEV	\$3,750	\$80,000
캐딜락	Lyriq	2023~2024	EV	\$7,500	\$80,000
쉐보레	Blazer	2024	EV	\$7,500	\$80,000
쉐보레	Bolt	2022~2023	EV	\$7,500	\$55,000
쉐보레	Bolt EUV	2022~2023	EV	\$7,500	\$55,000
쉐보레	Equinox	2024	EV	\$7,500	\$80,000
쉐보레	Silverado	2024	EV	\$7,500	\$80,000
크라이슬러	Pacifica PHEV	2022~2024	PHEV	\$7,500	\$80,000
포드	E-Transit	2022~2023	EV	\$3,750	\$80,000
포드	Escape Plug-in Hybrid	2022~2023	PHEV	\$3,750	\$80,000
포드	F-150 Lightning (Long Range)	2022~2023	EV	\$3,750	\$80,000
포드	F-150 Lightning (Standard)	2022~2023	EV	\$3,750	\$80,000
포드	Mustang Mach-E (Long Range)	2022~2023	EV	\$3,750	\$80,000
포드	Mustang Mach-E (Standard)	2022~2023	EV	\$3,750	\$80,000
지프	Grand Cherokee PHEV 4xe	2022~2024	PHEV	\$3,750	\$80,000
지프	Wrangler PHEV 4xe	2022~2024	PHEV	\$3,750	\$80,000
링컨	Aviator Grand Touring	2022~2023	PHEV	\$7,500	\$80,000
링컨	Corsair Grand Touring	2022~2023	PHEV	\$3,750	\$80,000
닛산	Leaf S	2024	EV	\$3,750	\$55,000
닛산	Leaf SV Plus	2024	EV	\$3,750	\$55,000
리비안	R1S Dual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S Quad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T Dual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T Dual Max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T Quad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테슬라	Cybertruck AWD	2024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3 Long Range AWD	2023	EV	\$7,500	\$55,000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2022~2023	EV	\$7,500	\$55,000
테슬라	Model 3 Standard Range RWD	2022~2023	EV	\$7,500	\$55,000
테슬라	Model X Long Range	2023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AWD	2022~2023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Long Range AWD	2022~2023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Performance	2022~2023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RWD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AWD PRO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AWD PRO S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AWD PRO S Plus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PRO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PRO S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PRO S Plus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S	2023	EV	\$7,500	\$80,000
폭스바겐	ID.4 STANDARD	2023	EV	\$7,500	\$80,000

OEM	모델명	연식	유형	크레딧 규모	MSRP 상한
쉐보레	Bolt EUV	2022~2023	EV	\$7,500	\$55,000
쉐보레	Bolt EV	2022~2023	EV	\$7,500	\$55,000
크라이슬러	Pacifica PHEV	2022~2024	PHEV	\$7,500	\$80,000
포드	Escape Plug-in Hybrid	2022~2024	PHEV	\$3,750	\$80,000
포드	F-150 Lightning (Long Range)	2022~2024	EV	\$7,500	\$80,000
포드	F-150 Lightning (Standard)	2022~2024	EV	\$7,500	\$80,000
지프	Grand Cherokee PHEV 4xe	2022~2024	PHEV	\$3,750	\$80,000
지프	Wrangler PHEV 4xe	2022~2024	PHEV	\$3,750	\$80,000
링컨	Corsair Grand Touring	2022~2024	PHEV	\$3,750	\$80,000
리비안	R1S Dual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S Quad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T Dual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T Dual Max	2023~2024	EV	\$3,750	\$80,000
리비안	R1T Quad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2023~2024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X Long Range	2023~2024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AWD	2023~2024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Performance	2023~2024	EV	\$7,500	\$80,000
테슬라	Model Y RWD	2024	EV	\$7,500	\$80,000



자료: IRS, 유진투자증권



---

03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 내연기관차 규제 철회

## 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규제 철회

- 2023년 4월 단행된 배기가스 규제를 철회하고 강화된 CAFE 연비 규제를 종료시킬 것
- 배기가스 초과 배출 벌금을 5.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 →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를 트럼프가 지연, 바이든이 재도입
-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 연평균 5~10% 강화 →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평균 1% 상승에 불과
- 차체가 크고 연비가 낮은 고급차, 대형 SUV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환경 규제로 인한 내연기관차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축소될 전망
- 픽업 트럭 비중이 높은 미국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어 이미 짜여진 친환경차 전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

미국 엔진 제조사 커민스 - 16.7억달러 벌금 부과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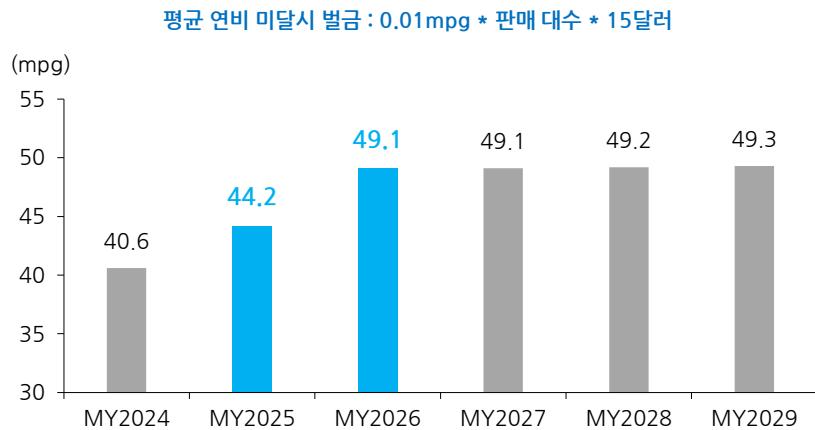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참고: 약 100만대의 픽업 트럭에 연비 치팅 장치를 장착한 것에 대한 벌금 부과

참고: 디젤 엔진과 유사한 사례로 미국 제조사의 연비 문제는 심각한 상황

현행 미국 환경 규제 -연비 연평균 5~10%씩 대폭 강화



자료: US DOT, Final-rule-Preamble\_CAFE\_MY 2024-2026(2022.4.1)

참고: 자동차의 Model Year는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8~9월 변경되나 더 이른 시기에 바뀌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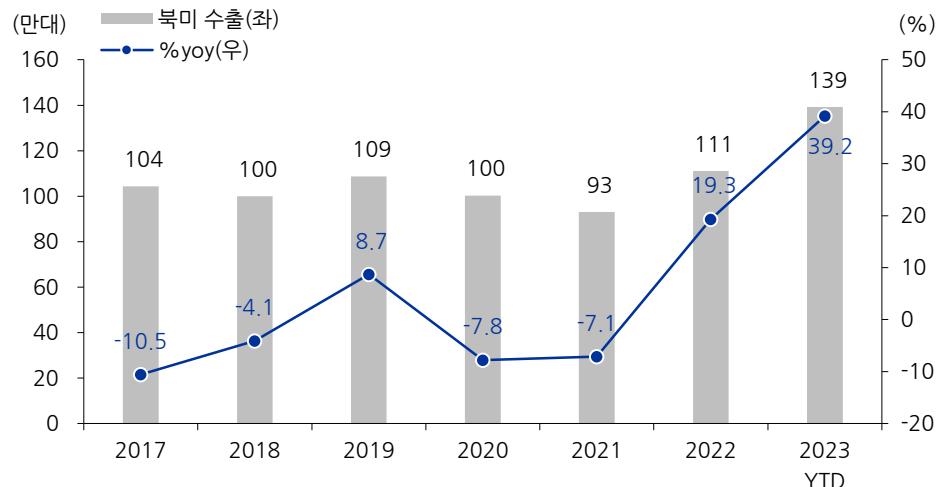
참고: MY27 이후 환경 규제는 아직 미확정

#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법

-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통과 시킬 예정
- 트럼프 상호 무역법은 상대국이 미국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15%, EU 10%. 부품에 대해서도 비대칭적 관세 장벽이 존재
- 2018년 무역확장법 발동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미 자동차 수출은 견조하였음(17년 104만대, 18년 100만대, 19년 109만대)
-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현지 투자 확대 전략으로 상호 무역법을 돌파할 전망

## 한국의 북미 자동차 수출 대수



자료: Kama, 유진투자증권, 2023년은 11월 누적 기준  
참고: 2020~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생산 저조 영향  
참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위협

## 24년 10월 조지아 공장 가동 - 수출에 비례한 현지 생산 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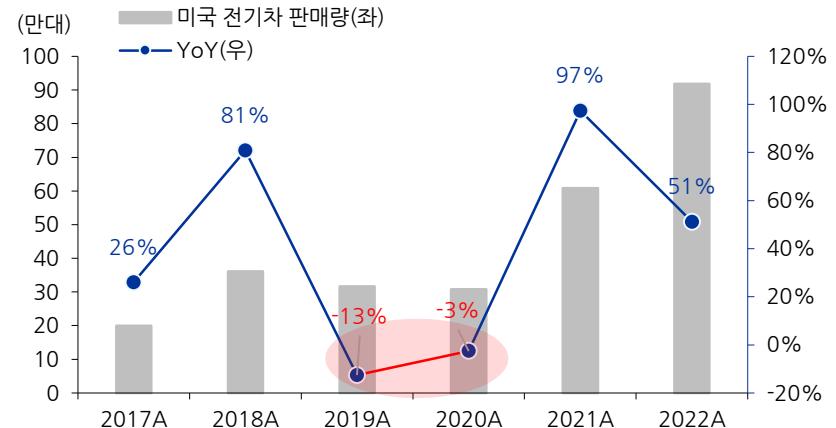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참고: 현대차 그룹은 EV 수요 둔화에도 24년 10월 예정대로 신공장 가동할 계획임을 밝힘

# 과거 트럼프 임기 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성장

##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성장, 풍력과 태양광은 견조한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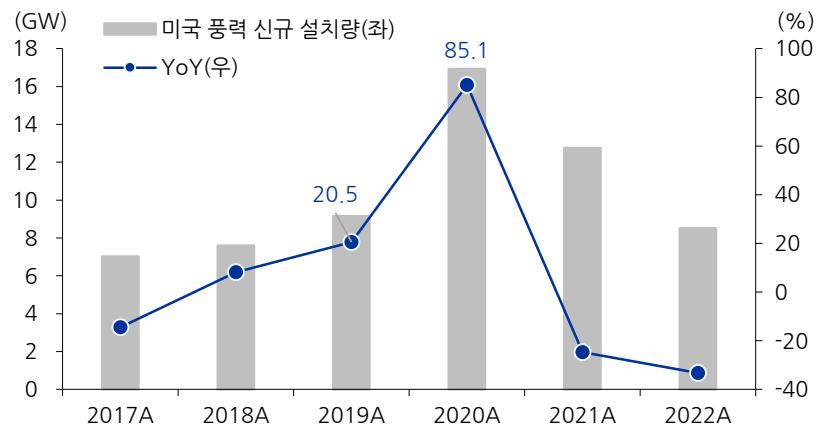
- 재임기간이었던 2019년과 2020년 각각 -13%, -3%로 역성장, 낮아진 연비규제가 원인.
- 반면 동기간 풍력 신규 설치량은 20.5%, 85.1%로 높은 성장세 보여
- 태양광도 2019년 역성장 했으나 2020년에 99%성장 보이며 상승세
- 오바마 임기 말 입법화된 풍력 태양광 보조금 지급이 원인

트럼프 재임기간동안 전기차 판매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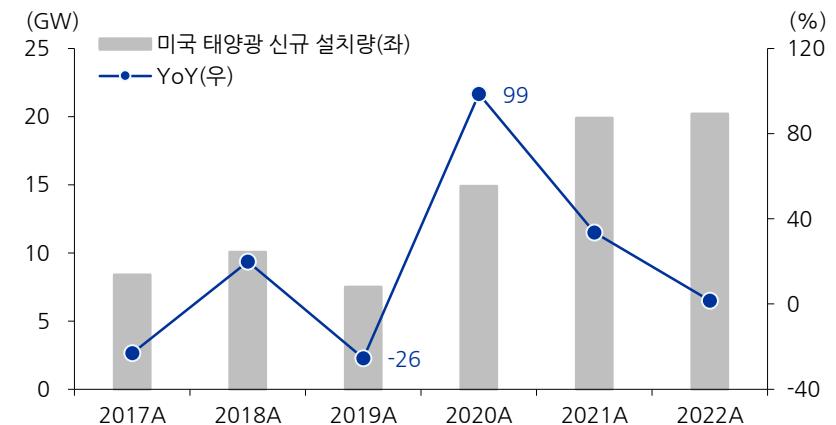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 트럼프 재임기간에도 견조했던 미국 풍력 신규 설치량



자료: GWEC, 유진투자증권

## 트럼프 재임기간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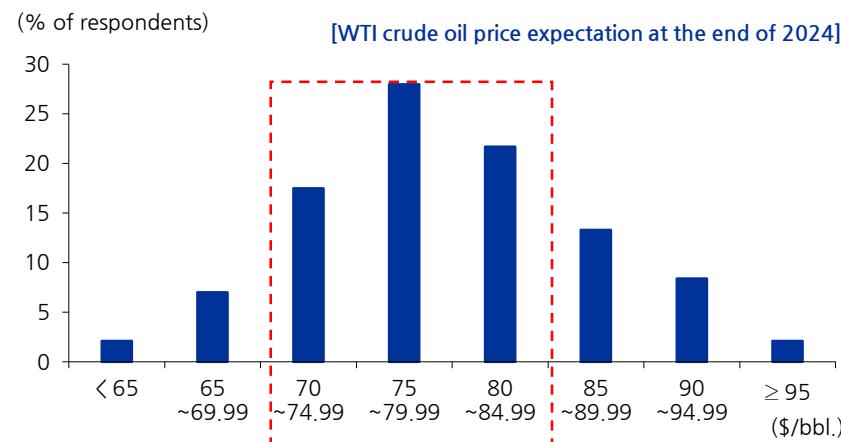


자료: IRENA, 유진투자증권

# 미국 댈러스연준 에너지 서베이 결과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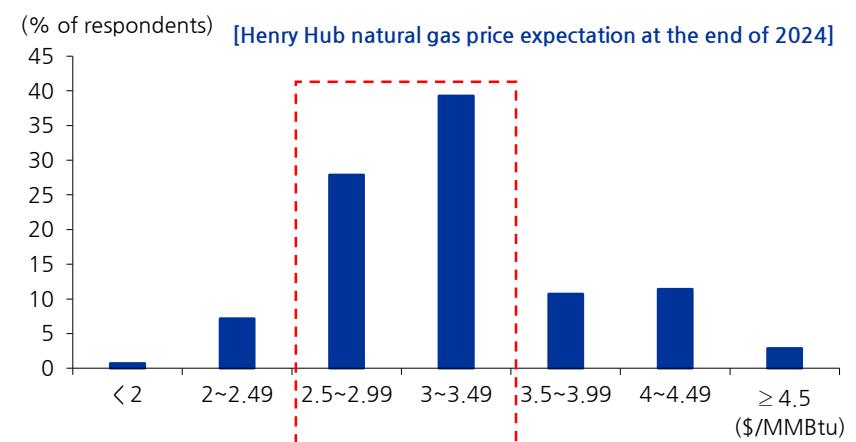
- 댈러스 연준은 미국 에너지 시장, 유전서비스 업체들의 활동 지수와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음
- E&P 업체들에 의하면 석유,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 분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1분기 연속 비용 증가를 보고](#)
- 대부분의 유전 서비스 회사는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기업 전망 지수는 긍정적으로 추세 전환
- 미국 E&P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에너지가격은 국제유가(WTI) 88달러, 천연가스(Henry Hub) 3.14달러/MMBTU로 전망
- 생산량 10,000b/d 미만의 생산 규모는 소형 업체로 분류되며, 10,000b/d 이상 업체는 대형 업체로 구분. 소규모 업체의 수가 많지만, 생산량은 대형 업체가 80%를 차지 중. 대규모 기업들은 연말까지 생산비용이 안정화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소형 업체는 비용 부담이 지속되어 생산량 감소를 전망](#)

미국 143개 E&P, 유전서비스 업체들의 국제유가 전망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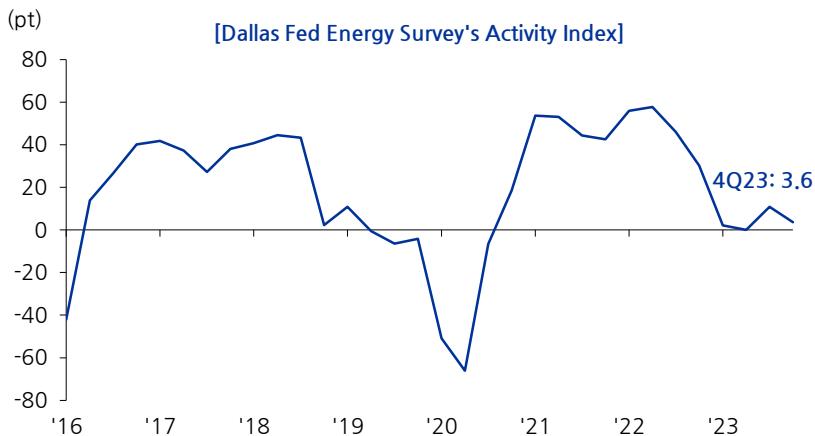
미국 140개 E&P, 유전서비스 업체들의 가스가격 전망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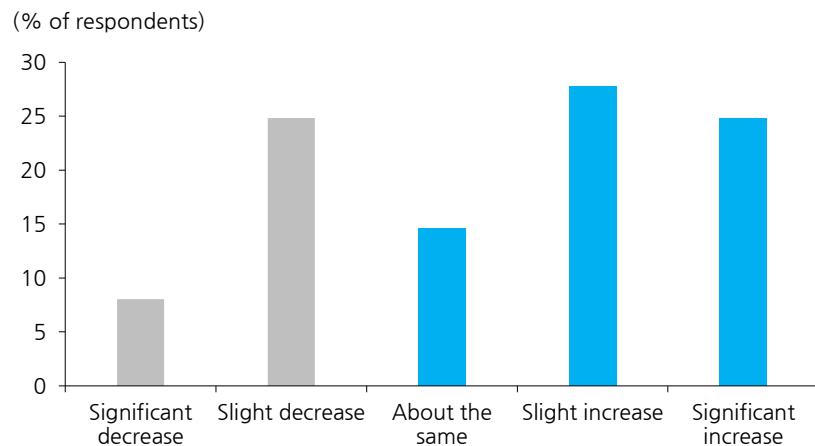
# Oil & Gas M&A가 활발한 이유

## E&P 활동지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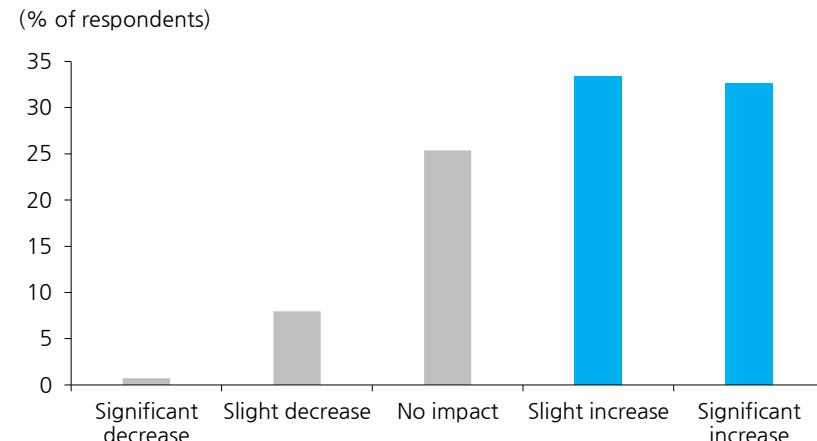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 Special question. '50년 원유수요 전망은?: 53%가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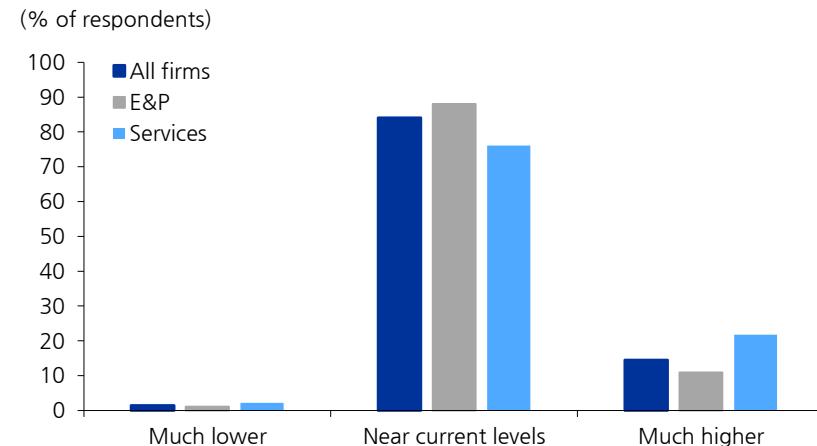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 Special question. 5년 후 에너지 전환 영향은?: 66%가 유가 상승 전망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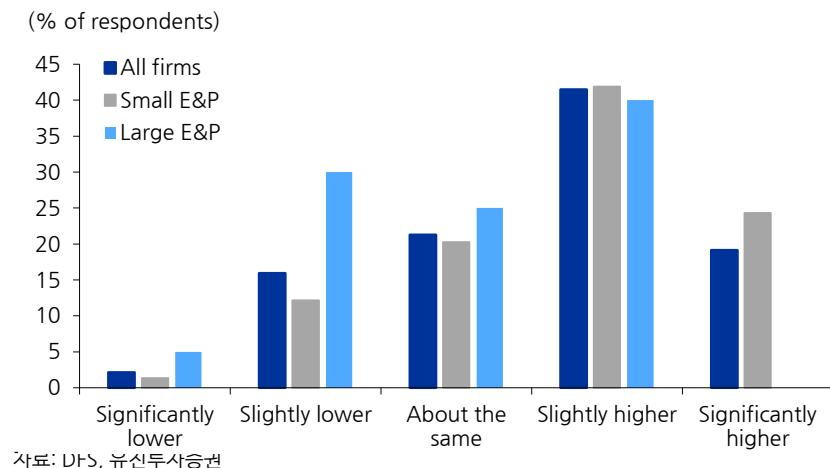
## Special question. 6개월 뒤 미국 원유시추 리그 수 전망은?: 현 수준 전망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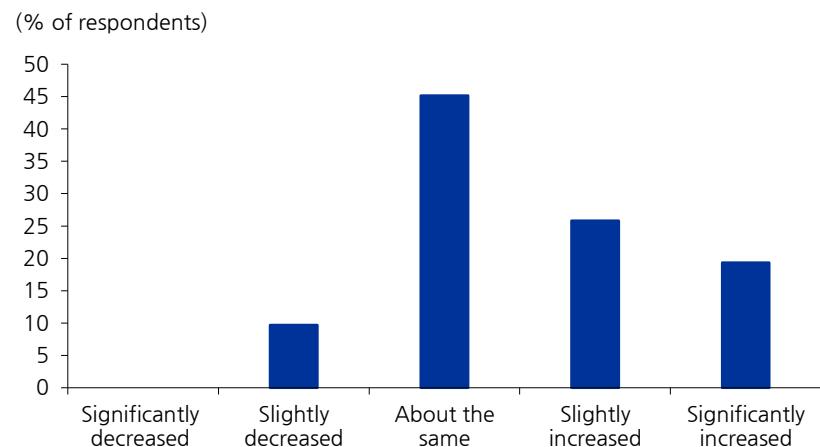
# 대부분의 기업이 악화된 영업환경을 언급

Special question. '24년 시추·완료 비용은?: 61%가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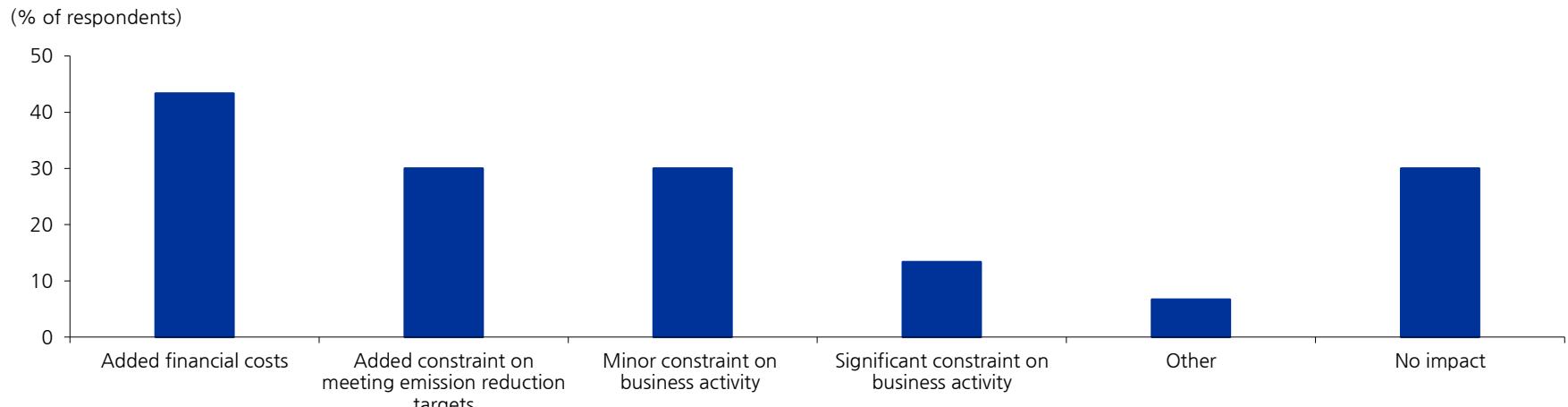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Special question. 1년 전과 비교해서 퍼미안 분지 신규 웰패드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리드타임의 변화는?: 45%가 동일하다 보고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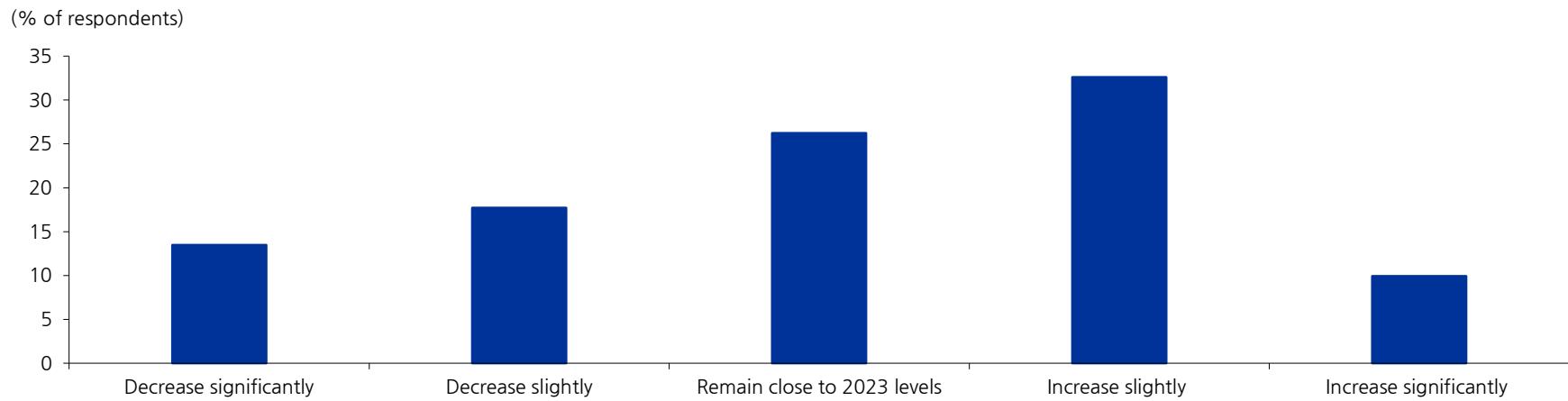
Special question. 퍼미안 분지 신규 웰패드 전력망 연결 관련 리드타임의 영향은?(해당되는 사항 모두 제출): 43%가 비용 증가를 체감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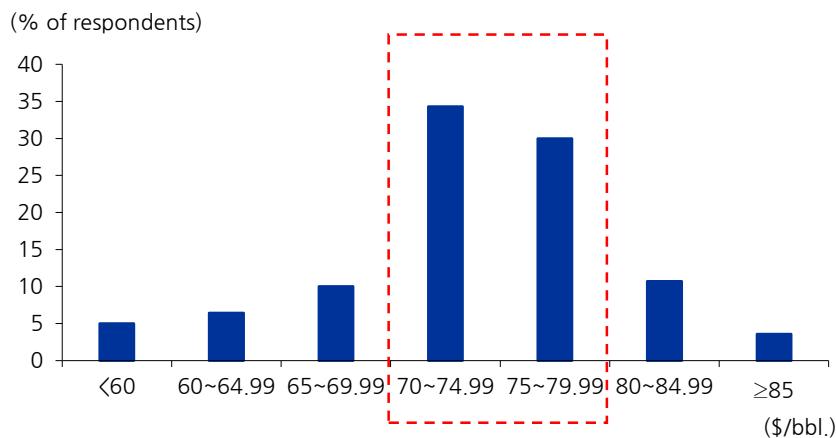
# 대부분의 기업이 악화된 영업환경과 시장 재편 가능성 언급

Special question. 전년비 자본 지출은?: 59%가 비슷 또는 소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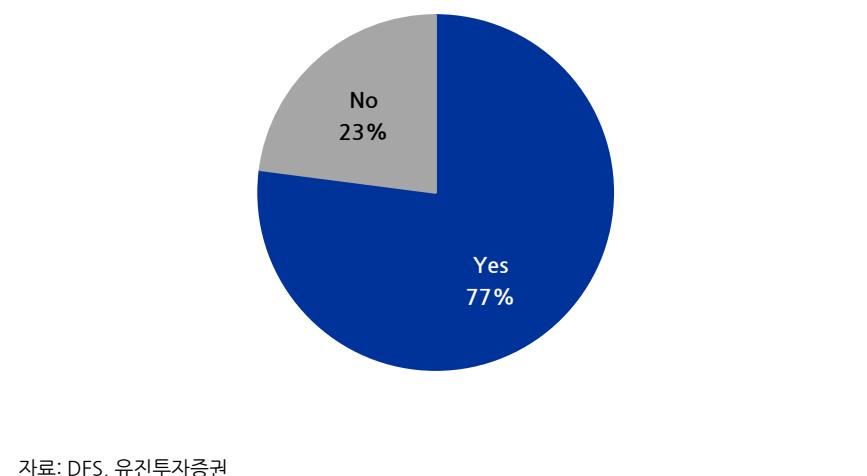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Special question. 자금계획 수립 시 가정한 유가는?: 64%가 70~80달러/배럴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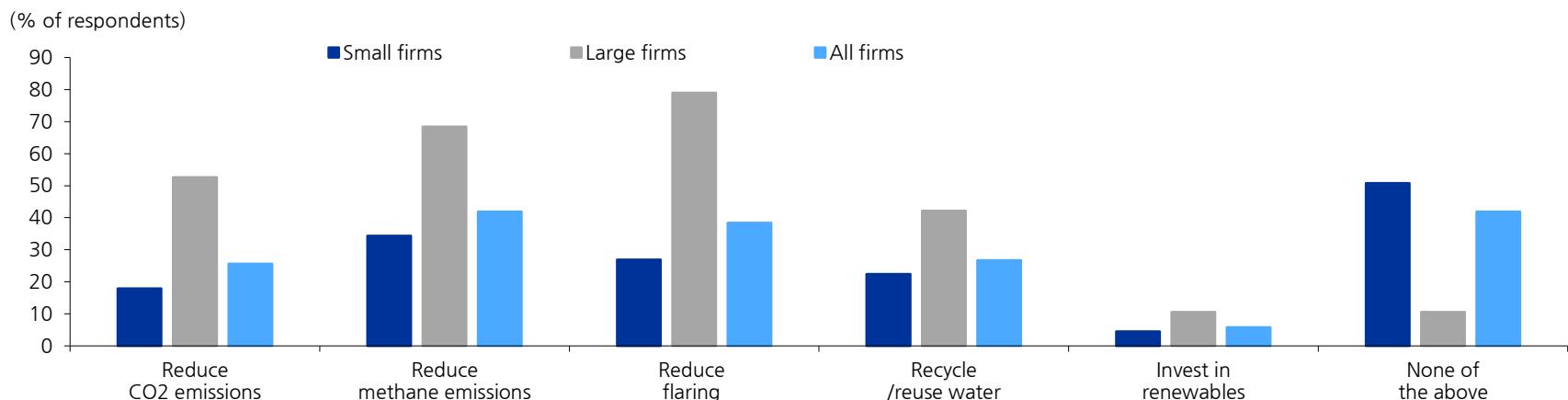
Special question. 향후 2년간 작년 10월 수준의 M&A 딜이 더 성사 가능할지?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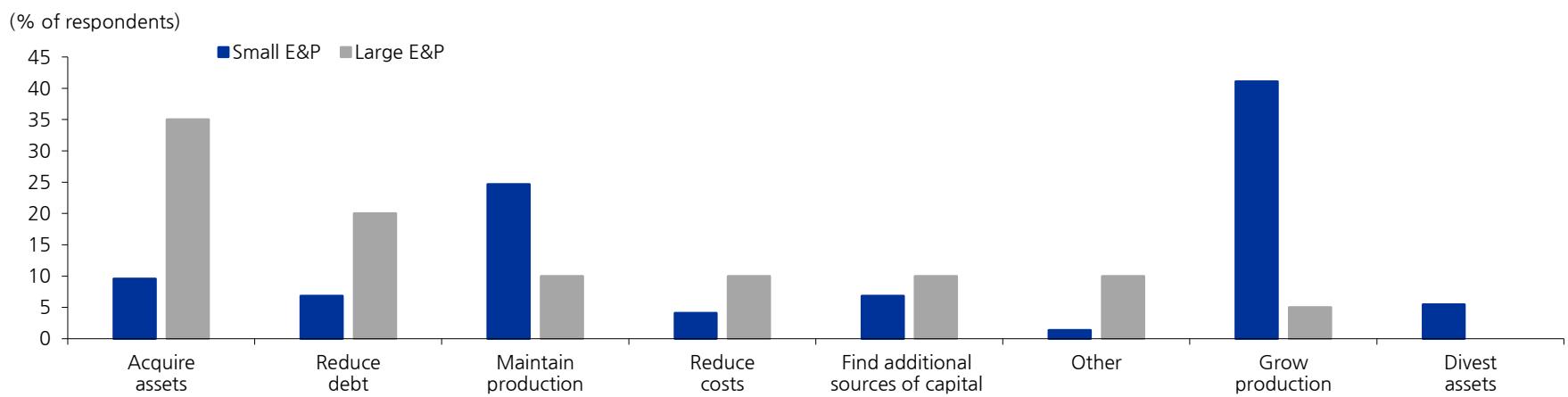
# 소규모 업체는 생산 확대, 대규모 업체는 자산 취득

Special question. 보유 중인 ESG 계획은? (해당되는 사항 모두 제출)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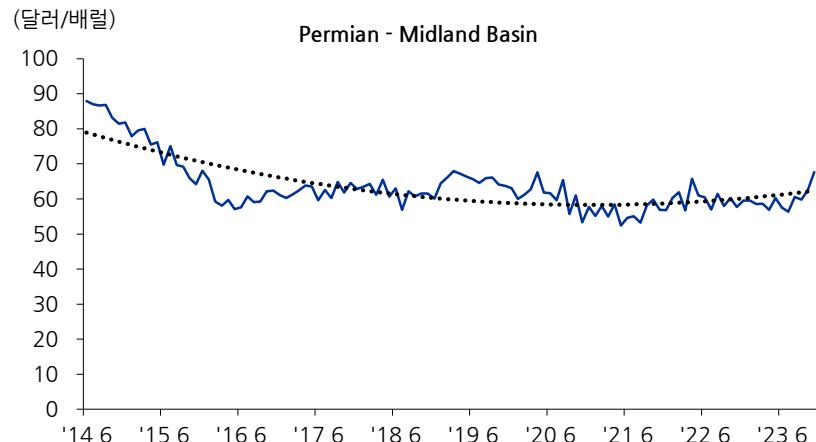
Special question. 2024년 1순위 목표는?: 소규모 업체는 생산량 증대, 대규모 업체는 자산 획득이라 답변



자료: DF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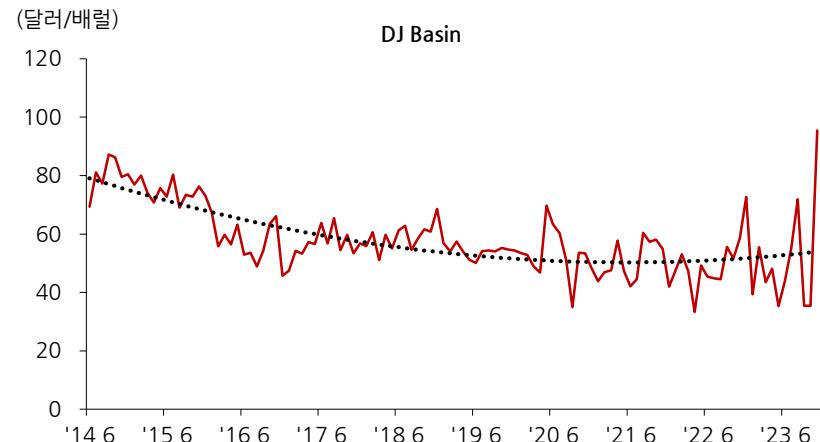
# E&P 시추 원가 상승

광구별 시추 원가 추이 : 퍼미안 델라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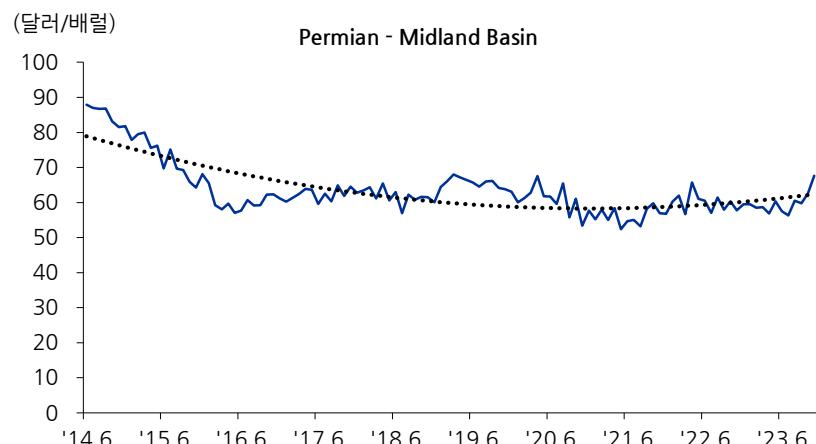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광구별 시추 원가 추이 : D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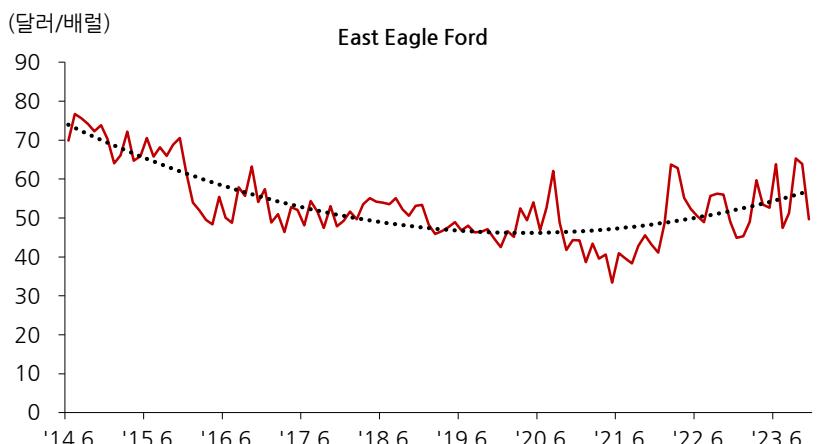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광구별 시추 원가 추이 : 퍼미안 미드랜드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광구별 시추 원가 추이 : 이글포드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엑손모빌, 쉘브론, 옥시덴탈의 E&P 기업 인수, Why?

엑손모빌, 600억달러에 美 세일오일 혁명 선도한 파이오니어 인수

## ExxonMobil agrees to buy shale group Pioneer in \$59.5bn deal

Acquisition is biggest for the supermajor in decades and expected to herald wave of consolidation

ExxonMobil has agreed to buy Pioneer Natural Resources in a \$59.5bn deal that is set to unleash a wave of consolidation in the US shale oil industry.

The biggest western oil supermajor said on Wednesday it had sealed an all-stock deal that values Pioneer at \$253 per share. The combination hands Exxon a dominant position in the Permian Basin, the vast field in western Texas and New Mexico that has helped turn the US into the world's largest oil and gas producer.

자료: FT, 유진투자증권

옥시덴탈, 120억달러에 퍼미안 분지 E&P 업체 크라운락 인수

Deals

## Occidental Petroleum to expand Permian ops with \$12 billion deal for CrownRock

By Sabrina Valle, Sourasis Bose and Arathy Somasekhar

December 12, 2023 5:40 AM GMT+9 · Updated 22 days ago



HOUSTON, Dec 11 (Reuters) - Occidental Petroleum ([OXY.N](#)) on Monday agreed to buy closely-held U.S. shale oil producer CrownRock in a cash-and-stock deal valued at \$12 billion including debt, expanding its presence in the largest U.S. shale oilfield.

The deal comes amid a new wave of shale [consolidation](#) underpinned by Exxon Mobil's ([XOM.N](#)) \$60-billion proposed deal for Pioneer Natural Resources ([PXD.N](#)) and Chevron's ([CVX.N](#)) \$53-billion agreement for Hess ([HES.N](#)) in October.

자료: REUTERS, 유진투자증권

쉘브론, 530억달러에 헤스 인수해 가이아나 유전 확보

BUSINESS

## Chevron buys Hess for \$53 billion, 2nd megadeal in the oil patch this month as energy prices soar

Chevron is buying Hess Corp. for \$53 billion and it's not even the biggest acquisition in the energy sector this month as major producers seize the initiative while oil prices surge.

Crude prices rose sharply in early 2022 with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are hovering around \$90 per barrel after ticking another 9% higher this year. That has made big drillers cash rich and they are looking for places to invest.

자료: AP News, 유진투자증권

인수 후 미국 상위권 셰일 업체들의 생산규모

Exxon+Pioneer

Chesapeake

EOG Resources

EQT Corporation

ConocoPhillips

Occidental + CrownRock

Southwestern Energy

Chevron + Hess

Coterra Energy

Devon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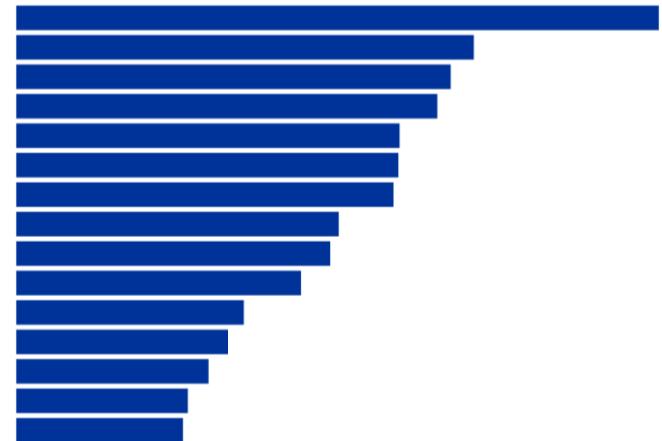
Continental Resources

Antero Resources

Diamondback Energy

Ascent Resources, LLC

BP



자료: REUTERS, 유진투자증권

# 미국 석유 공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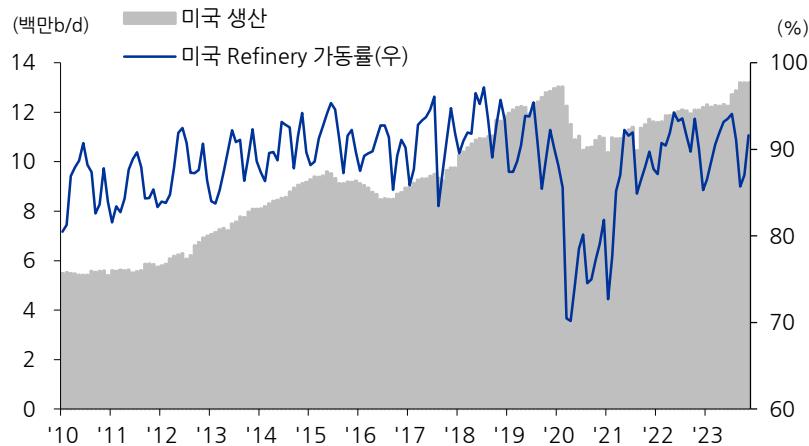
- 세계 원유 공급량은 1.2억배럴에서 정체 → OPEC의 감산 영향
- 미국 원유 생산량은 1,300만b/d으로 증가
- 시추 효율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사우디의 원유 생산 비중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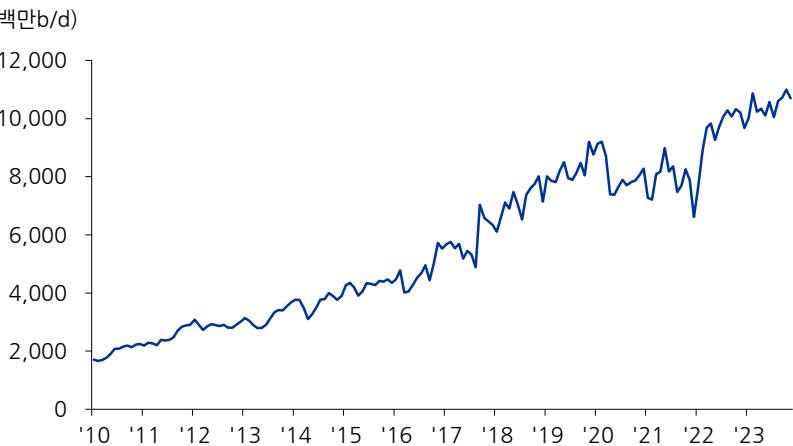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미국 경제설비 가동률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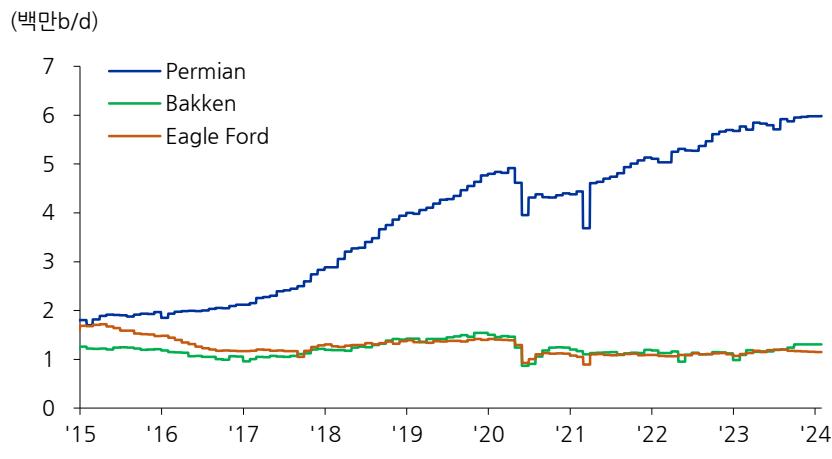
## 미국 석유 제품 수출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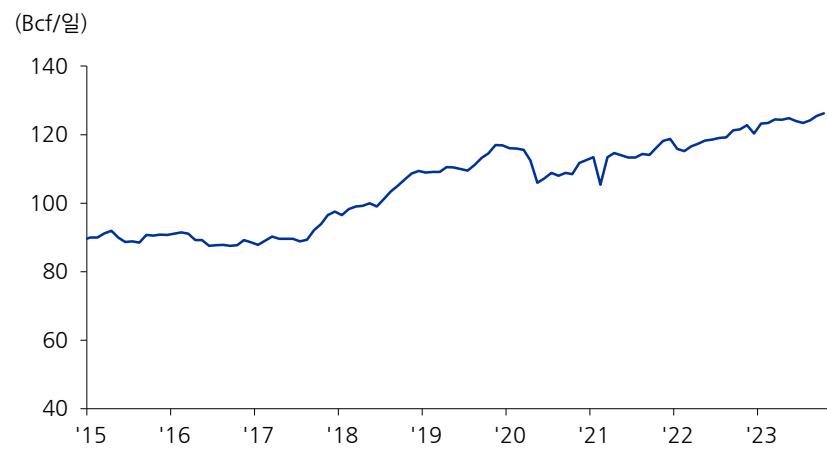
# 시추 리그가 감소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 주요 세일오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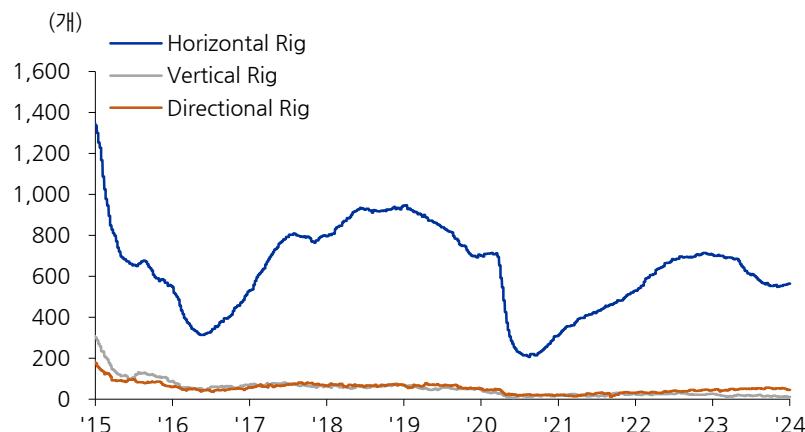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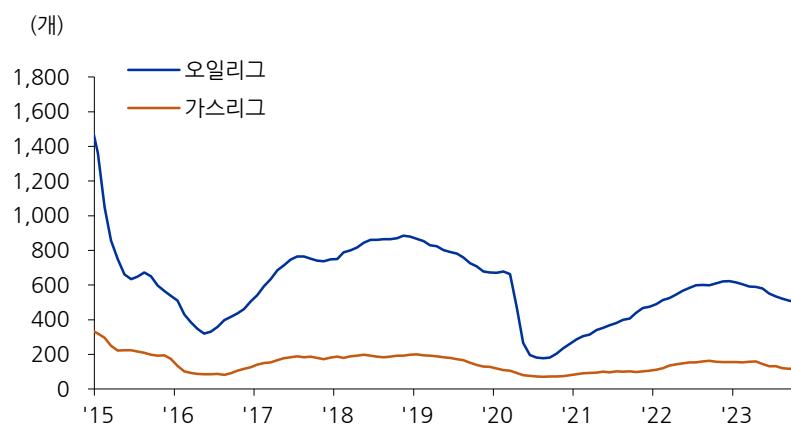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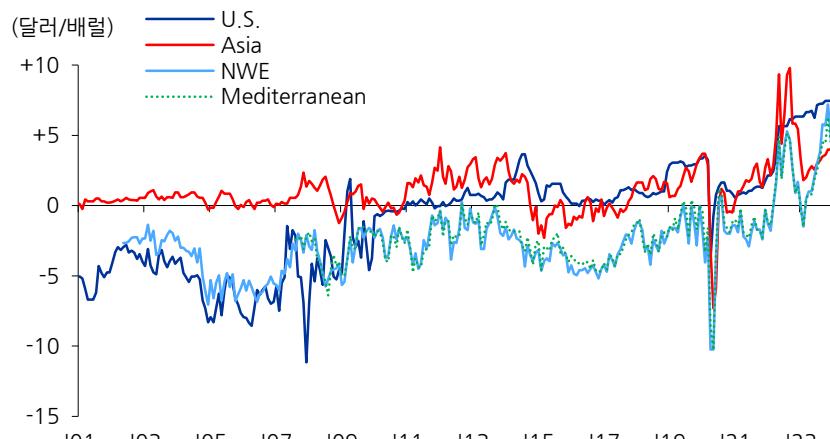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미국향 OSP와 전략비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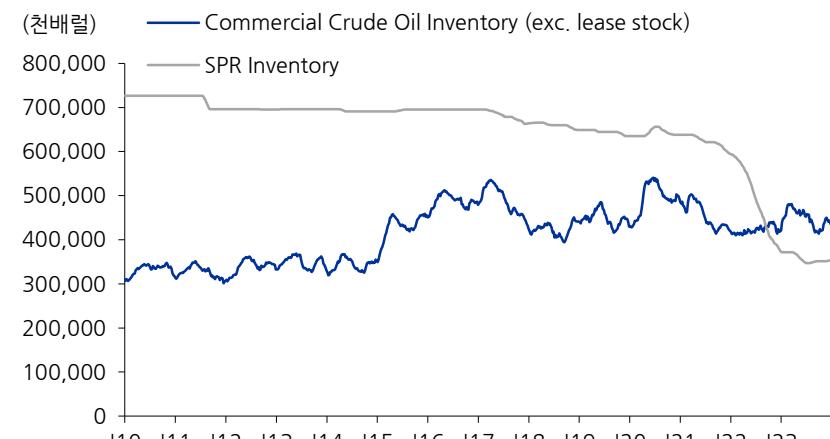
- OSP는 Official Selling Price의 약자로 중동산 원유에 붙는 프리미엄
- 2000년대에는 사우디와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로 미국향 OSP는マイ너스 프리미엄을 지속했음
- 미국향 OSP 강세, 아시아향 OSP 인하의 의미
- 미국은 IEA에 가입한 국가이며, IEA 가입국은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경우 전략비축유 재고를 의무로 확보해야 함
- 2010년 이후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7억배럴에서 3.4억배럴까지 감소했으며, 최근 비축유 증가 시작
- 미국의 원유, 가스 리그는 병목현상과 기업들의 조업 환경 악화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음

지역별 OSP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의 전략비축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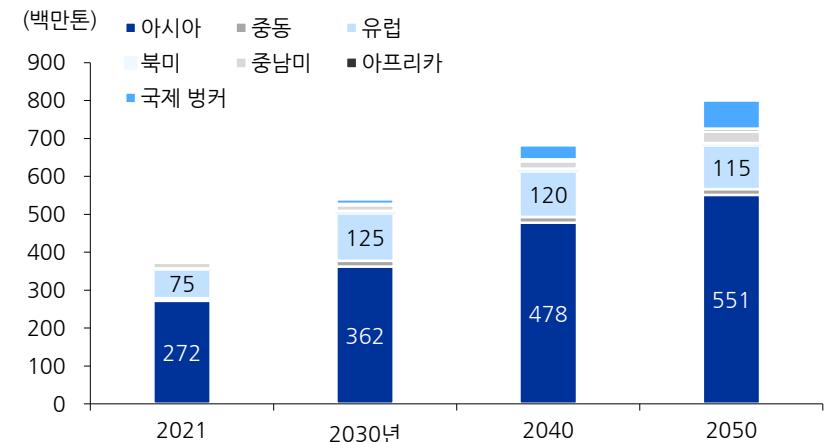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LNG 수출 확대 정책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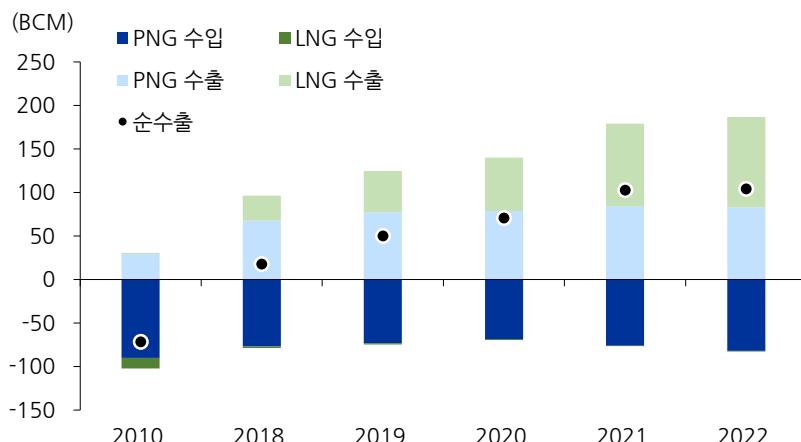
-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수요를 강제로 감축 중
- LNG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LNG를 미국으로 부터 조달 중
- 미국의 LNG 수출은 증가 중이나, 터미널 증설은 2025년 이후에 몰려있으며,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한 증설 확대 전망
-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 중인 PNG는 여전히 85BCM이며, Yamal, Turk stream PNG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대안이 항상 필요

## LNG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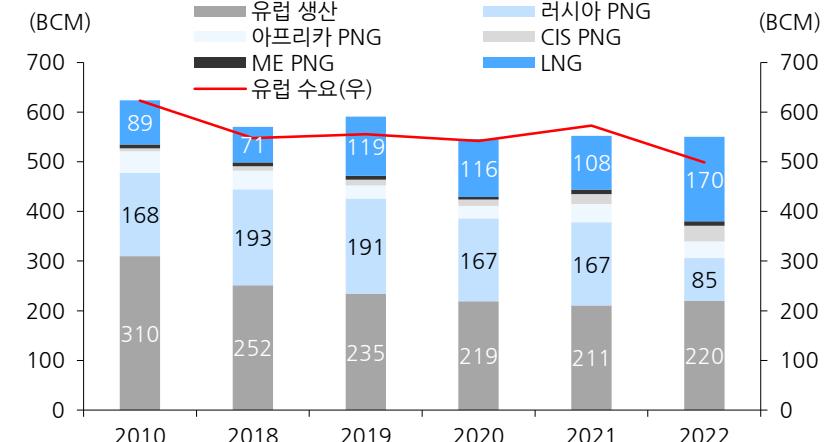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P, GIIGNL, Platts, 유진투자증권

## 미국의 가스 무역 동향



자료: Bloomberg, BP, GIIGNL, Platts, 유진투자증권

## 유럽의 PNG, LNG, 가스 수요 동향



자료: Bloomberg, BP, GIIGNL, Platts, 유진투자증권

# 러시아-유럽 파이프라인 동향

러시아, 유럽 경유 파이프라인



자료: Euranet, 유진투자증권

#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의 리스크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 캐파는 최대 318BCM/년

파이프라인 이름	운영 시작	파이프라인 경로	거리 (km)	CAPA (Bcm/y)	직경 (inch)	지분 (%)	
Northern Lights	1973년	Urengoy (러시아) - Uzhgorod (우크라이나)	4,200	29	48	Gazprom	
Soyuz	1980년	Orenburg (러시아) - Uzhgorod (우크라이나)	2,700	28	56	Gazprom	
Urengoy - Pomary - Uzhgorod	1984년	Urengoy (러시아) - Uzhgorod (우크라이나)	4,500	28	56	Gazprom, UkrTransGaz	
Progress	1988년	Yamburg (러시아) - Uzhgorod (우크라이나)	4,600	28	56	Gazprom	
Yamal - Europe Pipeline	2012년	Torzhok(러시아) - Minsk(벨라루스) - (폴란드) - Frankfurt(독일)	4,100	33 - 60	56	<러시아> Gazprom <폴란드> EuroPolGaz (Gazprom, PGNiG) <벨라루스> Gazprom <독일> Wingas (Gazprom, Wintershall)	
블루 스트림	2003년	Beregovaya(러시아) - Ankara (터키)	1,213	19	24 - 54	BOTAS, Blue Stream Pipeline BV (Gazprom, ENI : 판매 예정)	
Turk Stream	Line1	2020년	Anapa (러시아) - Luleburgaz (터키)	900	15.75	32	Gazprom
Nord Stream	Line 1	2011년	Vyborg(러시아) - Greifswald (독일)	1,224	27.5 ~ 55	48	Gazprom
	Line 2	2012년					
Nord Stream 2	Line3,4	-	Ust-Luga(러시아) - Greifswald (독일)	1,220	27.5 ~ 55	48	Gazprom 51%, Wintershall 10%, Uniper 10%, OMV 10%. Shell 10%, ENGIE 9% *Ownership before the approval process was halted
합계				236 ~ 318			

자료: Bloomberg, BP, GIIGNL, Platts, 유진투자증권

# 유럽 LNG 수입 설비 계획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용량은 기화 설비 76백만톤, 탱크 330만㎘이나 대부분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음

국가명	플랜트명	캐파 (Mt/y)	저장 설비	용량 (㎘)	총 용량 (㎘)	년도	소유 기업	투자금액
에스토니아	Paldiski	1.8	1	1×160,000	160,000	계획 중, 미정	Balti Gaas	-
	탈린	0.4	-	-	-	계획 중, 미정	Liwathon EOS	-
라트비아	Skulte LNG terminal (FRU)	3.0	-	-	-	계획 중, 미정	Skulte LNG terminal	-
	리가	3.7	-	-	-	계획 중, 미정	Latevenergo	-
핀란드	Gdansk (FSRU)	4.5	-	-	-	2025	Gaz-System	700백만유로
독일	Wilhelmshaven	-	-	-	-	2025	-	-
	게이트 LNG	1.1	-	-	-	2024	Vopak 50%, Gasunie 50%	-
	Zeebrugge	4.7	-	-	-	2024	Fluxys	-
	Zeebrugge	1.3	-	-	-	2026	-	-
영국	Isle of Grain	3.8	1	1×190,000	190,000	2025	National Grid	200백만유로
	Port Meridian (FSRU)	5.0	1	1×170,000	170,000	계획 중, 미정	Meridian LNG, InfraStrata	-
아일랜드	Shannon LNG	4.5	4	4×200,000	800,000	계획 중, 미정	Shannon LNG (New Fortress Energy)	-
프랑스	Montoir-de-Bretagne	-	1	1×190,000	190,000	2024	Elenrgy	-
	Fos-Cavaou	-	-	-	-	2024	-	-
스페인	Tenerife (Canary Islands)	1.0	1	1×150,000	150,000	잠정 보류	Enagas	-
	Gran Canaria (Canary Islands)	1.0	1	1×150,000	150,000	잠정 보류	Enagas	-
이탈리아	LNG MedGas Terminal	8.8	4	4×160,000	640,000	계획 중, 미정	Sorgenia&Iride 51%, MedGas 49%	-
	Falconara LNG	2.9	-	-	150,000	계획 중, 미정	Api Nova Energia	-
	Porto Empedocle	6.0	2	2×160,000	320,000	계획 중, 미정	Enel	650백만유로
	Venice LNG	-	-	-	32,000	계획 중, 미정	Venice LNG (DecalSpA, SanMarcoPetroli)	-
알바니아	Eagle LNG (FSRU)	5.9	-	-	230,000	계획 중, 미정	Gruppo Falcione	700백만유로
	Alexandroupolis (FSRU)	4.0	1	1×153,500	153,500	계획 중, 미정	GasTrade 40%, Gaslog 20%, DEPA 20%, BULGARTRANSGAZ 20%	-
	Corinth LNG (FSRU)	1.9	1	-	-	계획 중, 미정	Motor Oil, Dioriga Gas	-
루마니아	AGRI LNG	11.0	-	-	-	계획 중, 미정	AGRI (SOCAR, GOGC, ROMGAZ, MVM)	14십억달러
우크라이나	Yuzhnyi (FSRU)	-	-	-	-	계획 중, 미정	Naftogaz, Frontera Resources	-
	Yuzhnyi (FSRU) 2	-	-	-	-	계획 중, 미정	Naftogaz, Frontera Resources	-
	First Gas (FSRU)	-	-	-	-	계획 중, 미정	First Gas, BW Gas	-
터키	Marmara Ereglisi	-	-	-	-	계획 중, 미정	-	-

자료: Bloomberg, BP, GLIGNL, Platts, 유진투자증권

---

# 04

## 국내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발표

## 중장기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발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이번 정권에 발표된 에너지 관련 법정 최고 계획
- 상쇄배출, ODA를 활용한 국제감축 비중 확대
- 산업 배출 계획은 축소

### 기준년 대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목표치

부문	구분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배출량	686.3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
	감축률(%)	(기준년)	7.6%	8.9%	10.0%	12.2%	14.8%	18.3%	22.8%	36.4%
전환	배출량	269.6	223.2	218.4	215.8	211.8	203.6	189.9	173.7	145.9
	감축률(%)	(기준년)	17.2%	19.0%	20.0%	21.4%	24.5%	29.6%	35.6%	45.9%
산업	배출량	260.5	256.4	256.1	254.8	252.9	250.0	248.3	242.1	230.7
	감축률(%)	(기준년)	1.6%	1.7%	2.2%	2.9%	4.0%	4.7%	7.1%	11.4%
건물	배출량	52.1	47.6	47.0	46.0	44.5	42.5	40.2	37.5	35.0
	감축률(%)	(기준년)	8.6%	9.8%	11.7%	14.6%	18.4%	22.8%	28.0%	32.8%
수송	배출량	98.1	93.7	88.7	84.1	79.6	74.8	70.3	66.1	61.0
	감축률(%)	(기준년)	4.5%	9.6%	14.3%	18.9%	23.8%	28.3%	32.6%	37.8%
농축수산	배출량	24.7	22.9	22.4	21.9	21.2	20.4	19.7	18.8	18.0
	감축률(%)	(기준년)	7.3%	9.3%	11.3%	14.2%	17.4%	20.2%	23.9%	27.1%
폐기물	배출량	17.1	15.1	14.7	14.1	13.3	12.5	11.4	10.3	9.1
	감축률(%)	(기준년)	11.7%	14.0%	17.5%	22.2%	26.9%	33.3%	39.8%	46.8%
수소	배출량	-	3.4	4.1	4.8	5.5	6.2	6.9	7.6	8.4
탈루 등	배출량	5.6	5.1	5.0	5.0	4.9	4.8	4.5	4.2	3.9
	감축률(%)	(기준년)	8.9%	10.7%	10.7%	12.5%	14.3%	19.6%	25.0%	30.4%
흡수원	배출량	-41.3	-33.5	-31.3	-28.9	-30.4	-29.1	-28.3	-27.6	-26.7
CCUS	배출량	-	-	-	-	-0.4	-0.7	-1.3	-3.2	-11.2
국제감축	배출량	-	-	-	-	-	-	-	-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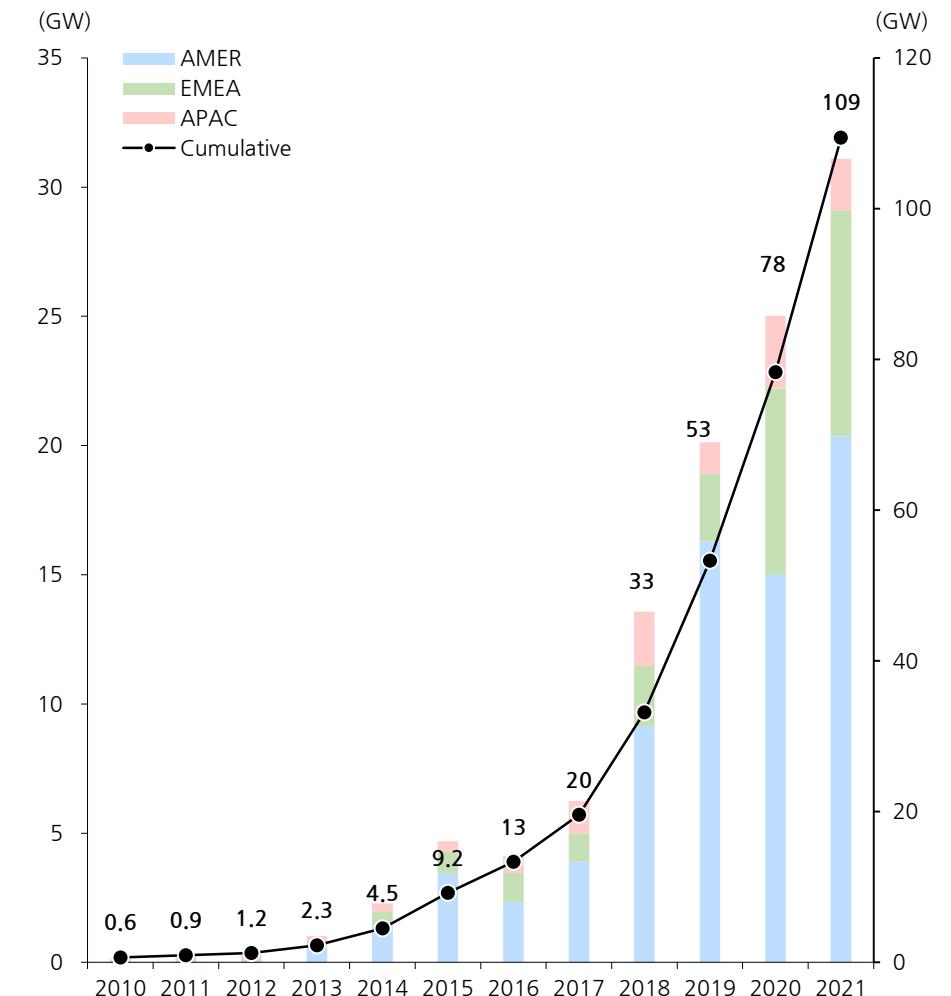
자료: 정부관계부처 합동, 유진투자증권

#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도 민간기업들의 PPA 활성화 정착시켜야

## TSMC, 세계 최대 그린 PPA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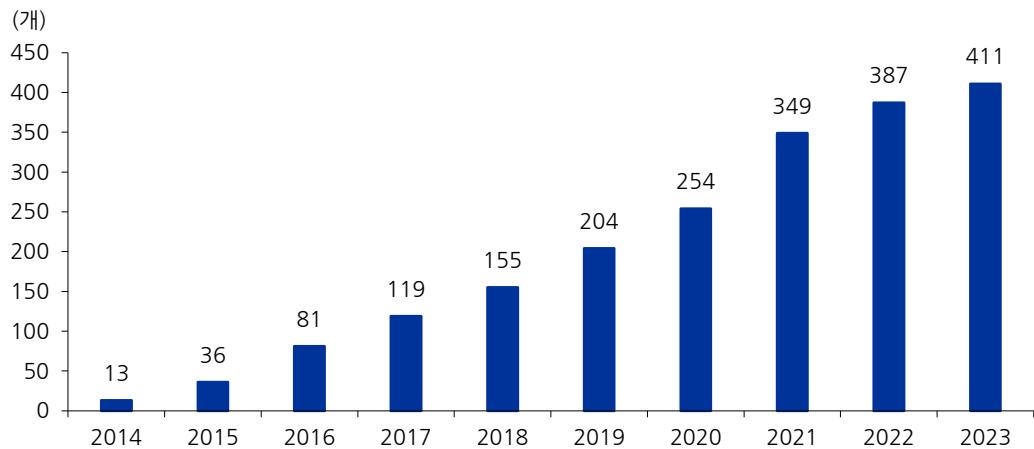
##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지역별)



자료: BNEF, 유진투자증권

# RE100에서 탄소감축으로 규제 확대, 대상기업 예상보다 많아

##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 수



자료: RE100, 유진투자증권

## 애플, 공급망 내 탈탄소화 요구

# Apple, 글로벌 공급망에 2030년까지 탈탄소화 촉구

Apple은 관련 생산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재생 에너지 및 기후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료: Apple, 유진투자증권

## 애플 공급망 내 국내 사업장 존재하는 해외기업

기업	소재지
3M	경기도
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	경기도
Amkor Technology	광주, 인천
Analog Devices	광주
Broadcom Limited	광주, 경기도
Corning	충청남도
Hirose Electric	경기도
JCET	인천
MegaChips	인천
Molex	경기도
Nitto Denko	경기도, 경상북도
ON Semiconductor	경기도
Parade Technologies	광주, 인천
Pegatron	서울
STMicroelectronics	광주, 인천
Sumitomo Chemical	경기도
Taiyo Yuden	경상남도
소계	17개

자료: Apple, 유진투자증권

## SK 8개사, 재생에너지 전력조달 'RE100' 한국 최초 가입

2일 RE100 가입 신청, '재생에너지 100% 전력 조달'  
주요 관계사도 RE100 준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스케이(SK)그룹 8개 회사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에 한국 최초로 가입한다.

1일 SK는 SK하이닉스, SK디털솔루션즈, SKC, SK실크론, SK미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티테크놀로지 등 8개사가 오는 2일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SK 8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된다. RE100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 받으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100%로 늘리게 된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런던 소재 미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시작했다. 현재 구글·애플·GM·마이크로소프트·BMW·이케아 등 전세계 263개 기업이 가입했다.

## 애플 공급망 내 국내 기업들

기업	소재지
범천정밀	경기도
덕우전자	경상북도
LG화학	충청북도, 서울
LG디스플레이	경기도, 경상북도
LG이노텍	경기도, 경상북도
LX세미콘	대전, 경상북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상북도
삼성전기	부산, 경기도, 세종
삼성전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
삼성SDI	충청남도
서울반도체	경기도
SK하이닉스	충청북도, 경기도
영풍기업	경기도
소계	13개

자료: Appl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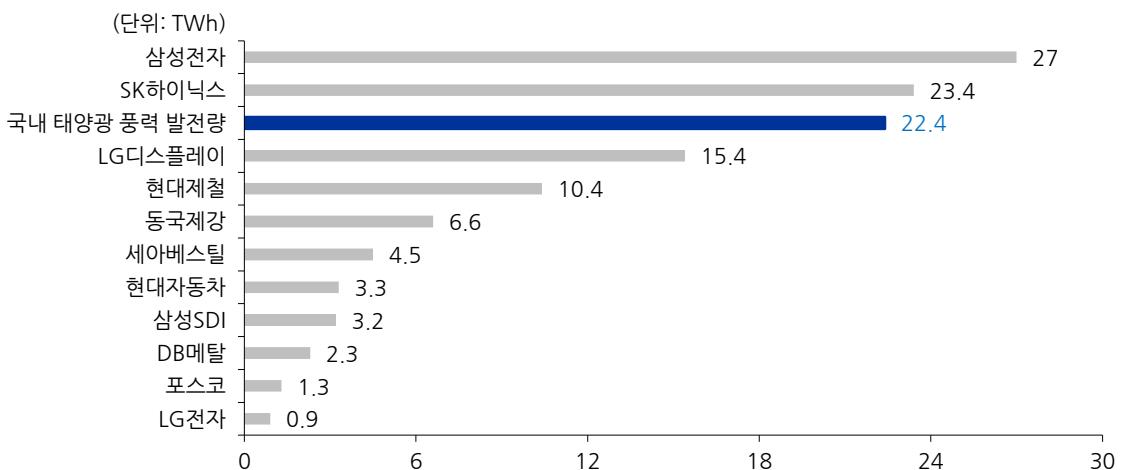
# 기업들 RE100 수요 확대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필수

국내 RE100 가입 기업 확대 일로

순번	기업명	가입연도	목표연도
1	LG전자	2023	2050
2	삼성생명	2023	2040
3	삼성화재	2023	2040
4	롯데월프드	2023	2040
5	신한금융그룹	2023	2040
6	카카오	2023	2040
7	삼성전자	2022	2050
8	삼성바이오로직스	2022	2050
9	삼성디스플레이	2022	2050
10	삼성SDI	2022	2050
11	삼성전기	2022	2050
12	KT	2022	2050
13	현대위아	2022	2050
14	현대차	2022	2045
15	네이버	2022	2040
16	기아	2022	2040
17	인천국제공항	2022	2040
18	LG이노텍	2022	2030
19	현대모비스	2022	2030
20	고려아연	2021	2050
21	한국수자원공사	2021	2050
22	KB금융그룹	2021	2040
23	롯데칠성음료	2021	2040
24	LG에너지솔루션	2021	2030
25	아모레퍼시픽	2021	2030
26	SK아이티테크놀로지	2021	2030
27	미래에셋증권	2021	2025
28	SK하이닉스	2020	2050
29	SK텔레콤	2020	2050
30	SK마티리얼즈	2020	2050
31	SKC	2020	2050
32	SK	2020	2040
33	SK실트론	2020	2040
잠정	삼성SDS	2022	2050

자료: RE100, 유진투자증권

국내 주요 수출기업 전력 사용량



자료: 각 기업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 엠비, 유진투자증권

국내 발전원별 생산유발계수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발전원별 고용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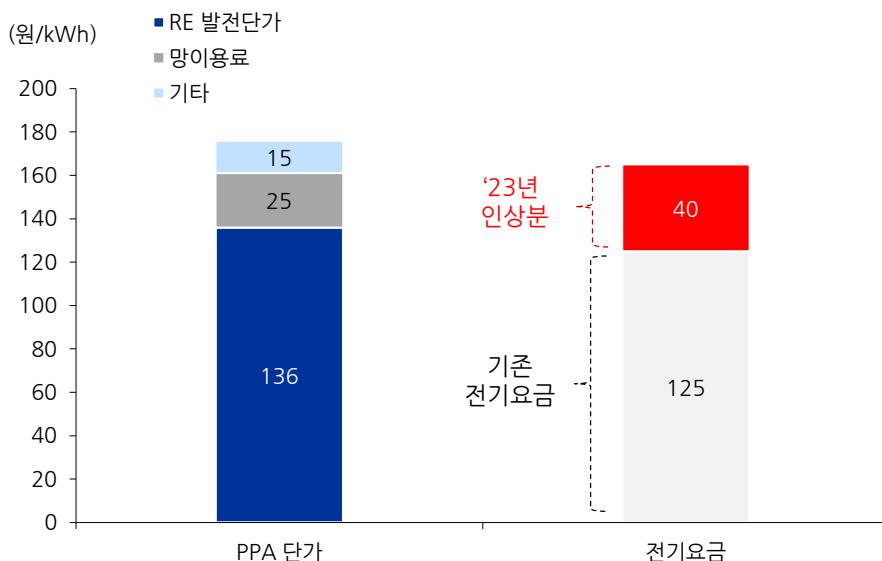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3자 PPA 활성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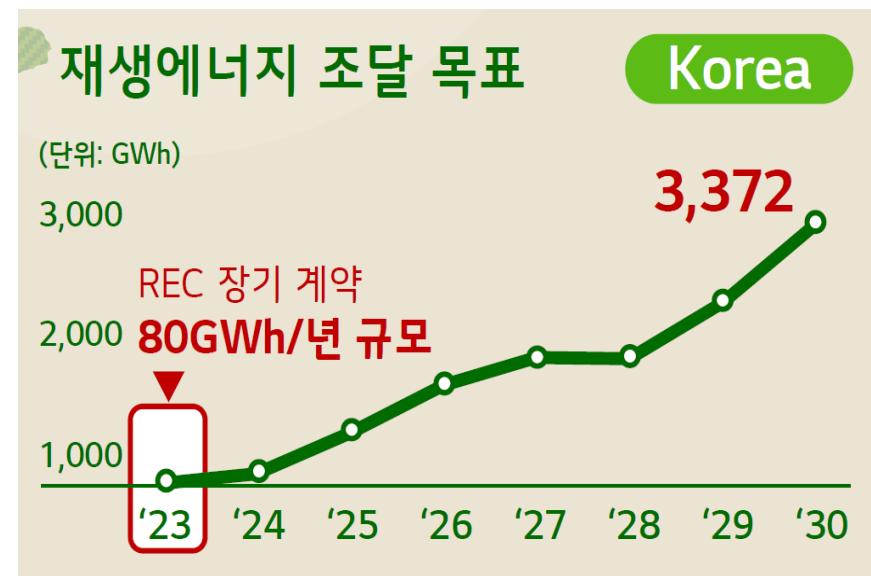
## LG화학, SK 등 구매계약 체결 발표

- 기존에는 PPA 계약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아 기업들의 의지가 높을 수 없었음
-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며 기업들의 니즈 확대
-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 우려되나, 한전의 누적 손실과 부채 감안 시 유지 전망

### 3자 PPA 단가와 전기요금 비교



### LG화학의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



자료: 유진투자증권 추정

자료: LG화학, 유진투자증권

#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 발표

## IFRS기준 따르는 한국기업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 필요

- 2023년 6월 26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S1과 S2 발표
- S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적 요구](#)
- S2: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 IFRS 산하 기구인 ISSB(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가 발표
-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를 제외한 기타 간접배출(기업의 공급망 전체 배출량, Scope 3)은 1년 유예

### IFRS S2의 의무공시 대상인 산업전반 지표(Cross - industry metric)

지표명	설명
Scope 1, 2, 3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기준에 따라 측정한 배출량
전환 위험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비율 및 금액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비율 및 금액
기후 관련 기회	기후 관련 기회와 연계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비율 및 금액
자본 배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을 위해 배정된 자본지출, 자금 조달 또는 투자금액(보고통화)
내부 탄소가격	기업이 탄소 가격을 의사 결정에 적용하는지 여부와 방법 및 온실 가스 배출 톤당 금액
보상	기후 관련 사항과 연계된 임원/경영진 보상 비율

자료: IFRS, ISSB, 유진투자증권

### Scope1~3으로 구분되는 범주에 따른 기업의 탄소배출 공시 범위

구분	내용
Scope 1	직접배출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발생한 탄소
Scope 2	간접배출 기업이 구매하고 소비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탄소
Scope 3	기타 간접배출 기업의 가치사슬(전/후방산업)활동,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한 모든 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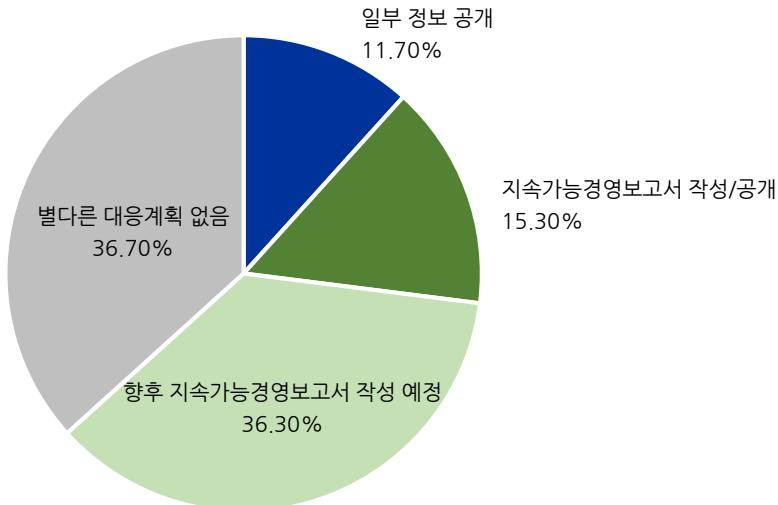
자료: IFRS, ISSB, 유진투자증권

# 금융위원회, K-ISSB 등 국내에서도 ESG 의무공시 로드맵 준비 중

## 한국판 ESG공시 기준 로드맵 검토 중

- ESG공시 로드맵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후 발표 예정. 지연되는 이유는 1) 모호한 공시기준대비 명확한 패널티, 2)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 적용 적정성 여부, 3) Scope 3 도입 4년 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
- 국내기업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ESG 의무공시에 '별다른 대응계획 없다' 응답 36.7%**
- 금융위원회의 ESG의무공시 시작 제안 시점은 2025년,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보다 2년 뒤에 법정 의무 공시 순차적 도입으로 절충안 제안
-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정책은 결국 국가 간 연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기준과 정책들이 상충할 경우 외교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국내 기업 300개사 대상 ESG의무공시 대응방안 조사결과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유진투자증권

상장시장과 자산규모별 거래소 공시와 법정공시 시작 시점 논의안(금융위, 자본연)

상장시장	자산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코스피	2조원이상	거래소		법정					
	1조원이상			거래소	법정				
	5천억원이상				거래소		법정		
	5천억원 미만					거래소		법정	
코스닥	5천억원 이상				거래소		법정		
	5천억원 미만						자율공시		

자료: 자본시장 연구원, 유진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2023.12.31 기준)